



아주대학교 사람들

아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훌륭한 대학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새해는 항상 시작하는 시점이자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출발에 앞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 아쉬웠던 것, 꿈꿔왔던 것들을 채우려 떠납니다. 2013년 새해는 아주대학교 설립 40주년, 저도 아주대학교의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주대학교로 부임하던 1987년 당시 공과대학장을 역임하고 계셨던 김철 교수님, 아주대의료원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이성낙 교수님, 학교 역사를 관통하고 계신 송용진 교수님과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좌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의 지난 시간은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학생중심의 대학을 만들고, 교육중심의 가치를 계승하고, 어떤 대학보다 원칙을 준수해 온 정직한 대학, 우리의 역사는 정도를 걷는 대학의 상징이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내내 창밖엔 눈이 하얗게 내리고 쌓였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이날 우리의 지난 추억도 살아있는 장면처럼 내려와 쌓였습니다. 원천골에 모였던 교수들의 의지와 학생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진지한 시간,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바꿔보겠다는 과감한 개혁 조치와 대우의 헌신적인 지원, 이런 소중한 요소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를 대학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한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아주는 소중한 과거의 산물입니다. 역사는 머물거나 방관하는 자에게 한 치의 발전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아주의 시간도 이제 40년을 통과하게 됩니다. 지나왔던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나갈 시간은 더욱 의미 있는 가치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주인 여러분, 냉소와 불통의 벽을 허물고 우리 학교가 훌륭한 대학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나아가는 길에 소중한 동참을 구합니다.



총장 안재환

안재환





Special Theme

- | | | |
|----|-----------------------|---------------------------------|
| 05 | 좌담 | 아주대학교 개교 40주년,
그 유산과 가치를 되짚다 |
| 12 | Special Theme Column1 | 김상배 교수 |
| 14 | Special Theme Column2 | 이은형 동문 |

Story of Ajou

- | | | |
|----|------------------|----------------------|
| 18 | Research | 최상돈 교수 |
| 20 | Story | 전미선 교수 |
| 22 | Issue | URP |
| 25 | Passion | 홍상훈·길보미·권은비 학생 |
| 26 | Prof. Column | 이선이 교수 |
| 28 | Photo Sketch | 제17회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
| 30 | Zoom In |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
| 34 | Focus |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
| 38 | Vision | 장위국방연구소 |
| 40 | Alumni Story | (주)바이오넷 대표 강동주 동문 |
| 42 | Thank donor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석호현 동문 |
| 54 | Admission Column | 김경래 입학처장 |

Ajou Univ. News

- | | |
|----|-------------------|
| 16 | People |
| 32 | Event |
| 36 | Award & Selection |
| 44 | News Brief |
| 46 | Medical Center |
| 48 | Donation News |



Ajou University 40th anniversary

“아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하는 것은 올곧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주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이한다. 짧지 않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주대가 쌓아올린 유산과 철학,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또한 발전과 성장이라는 현실적 화두 아래 미처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어떤 것들일까? 명쾌한 사실은 역사를 빛낸 위대한 유산과 찬란한 가치는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와 가치를 재발견해, 다가 올 미래를 조망하고 이를 통한 진중한 좌표를 세워야 한다. 현재를 관통하는 날선 시선으로 과거를 복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아주대학교 사람들> 2013년 신년호에는 개교 40주년을 맞은 아주대학교의 유산과 가치에 대해 안재환 총장, 김철 前 총장직무대행, 이성낙 前 의무부총장, 송용진 도서관장이 좌담을 나눴고, 스페셜 칼럼에서는 김상배(전자공학과) 교수와 이은형(사회학과 92) 동문이 지난 시절의 모교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담았다.

아주대학교 사람들

Ajou University Magazine 2013 New Year Vol. 4

아주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아주대학교사람들>은 <http://webzine.ajou.ac.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13년 1월 3일 / 발행인 안재환 / 편집인 노학래 / 발행처 아주대학교 홍보실 031-219-2918 / 편집 디자인 plus81studios 02-542-0810 / 사진 studio polly 김성재

Special Theme
좌담
Ajou University
40th anniversary

아주대학교 개교 40년, 그 유산과 가치를 되짚다

지난 12월5일, 아주대가 걸어 온 역사를 통해 그 유산과 가치를 되짚어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한 좌담이 진행되었다. 때로는 뜨거운 애정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진 이날 좌담에서 학생 중심의 대학, 교육 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거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개교 40주년을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모두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리 이슬(홍보실)



1996년 대학교육협의회가 펴낸 대학종합평가 보고서를 보면 아주대학교에 대해 '대학교육의 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가장 빨리 수준급 대학으로 발전한 대학'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아주대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송용진 _ 아주대학교의 설립은 1965년 조인된 한불문화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교수, 학생의 교류와 기술협력 등의 촉진을 주요 내용으

로 한 협정을 맺으면서 아주대가 탄생한 것이다. 대학설립 시기에 맞추어 프랑스 정부에서 아주대로 보내온 실험실습 기자재만 해도 상당한 규모였고, 이는 입학정원 480명의 소규모 대학이던 아주공과대학 학생들의 자량이 됐다. 공업 기반이 약했던 당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주대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교수 요원들도 한불협정에 의거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1980년대에 대거 귀국했다. 국내 대학이 학사학위만으로도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시절에 유학파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아주대 교수들의 박사학위 보유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김철 _ 1973년 아주공업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아주대는 1980년에 들어서자마자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특히 80년대 중반 김효규 총장이 부임해 의과대학과 아주대병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대학으로서의 내부 인프라를 튼튼하게 갖춰 놓은 상태에서 김덕중 총장이 한국대학교육의 전도사를 자임해 개혁을 통한 혁신을 이룬 것이 지금의 아주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한불문화협정과 대우재단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아주대는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난' 대학이다.

이성낙 _ 학교발전엔 있어서 여러 요소가 있었겠지만 개척정신과 미래지향적 사고가 아주대학교를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의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존 의과대학 교육에서 아쉽고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다. 지금은 많은 대학이 오히려 우리 의과대학을 본받아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의학과 인문학의 결합 등이 그것이다. 교육환경을 학생중심으로 개선했던 것, '연구 중심의 대학'을 만들려고 국내 최초로 대학 내에 의과학연구소가 문을 연 것 등은 새로 시작하는 대학으로서의 개척정신과 미래지향적 사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안재환 _ 1987년 아주대에 합류했는데 당시 '매우 젊고 역동적인 대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실력과 지성을 갖춘 교수들도 많았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 교수들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다는 점이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주말에도 모이기만 하면 학교 이야기를 하기에 바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다. 이러한 문화가 바탕이 된데다 당시 잘 나가던 대우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왔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없었기에 지금의 아주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40년을 걸어오면서 축적된 아주대만의 여러 가지 문화와 유산이 있을 것이다. 그 중 아주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송용진 _ 아주대의 가치 중 하나가 '학생 중심의 대학'이다. 1996년 전국 대학 중 최초로 학생서비스센터를 개설했고 같은 해 전면적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에게 전공선택권을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도 크게 고양됐다. 아주대의 학생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자 많은 타 대학 관계자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아주대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과 다른 대학, 특히 국립대학 교수들과의 사고방식을 비교해보면 우리 교수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대단히 강함을 알 수 있다. 교수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편의를 살피는 친근한 교수가 많다는 얘기가.

김철 _ 아주대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교육 중심의 대학'을 구현한 것에 있다. 대학 초창기부터 학생 교육을 중시해 왔는데 대학이 규모면에서 크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교육 중시하는 아주대의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지난 얘기지만 초창기 시절부터 아주대 학생들의 카이스트 진학률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대학가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좋은 교육을 위한 교수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열망이 합쳐진 결과였다. 당시 아주의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킨다'라는 생각이 강했다. 공부해 학생이 알아서 하고, 교수들을 그 길을 이끌어 준다는 얘기가.



아주대는 이제 '좋은 대학'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탁월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연구 역량이고, 교수들의 근속연수가 높아지면서 연구 동력을 어떻게 끌어낼지가 당면 과제다.

지난 15년간 대학이 학부제로 운영되면서 전공 특성이 떨어지고 학과별 평가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안재환 총장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방문 연구원을 거쳐 1987년 아주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입학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2011년 2월 제14대 총장에 취임했다.

안재환 _ 우리는 대학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학생 중심의 대학, 교육 중심의 대학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고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정도(正道)를 걷는 대학'이 아주대학교의 정신이 아닌가 싶다. 덕분에 대학경영과 제도에 있어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통해 정도를 걷는 대학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해온 점도 아주대의 특징이다.

이성낙 _ 아주대가 정도를 걸어왔다는 데 동의한다. 1988년 의과대학을 신설하면서 교수 인선작업을 할 때에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철저히 '각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뽑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당시 대우그룹의 회장, 사장단 규모만 봐도 수십 명으로 인사청탁의 여지는 남아있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과 김준업 대우학원 이사장, 김호규 총장께 '정보는 주시되 청탁은 막아 달라'는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다. 후에 그 분들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몰라도 실제 인사청탁은 들어오지 않았고, 투명하게 교수를 선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아주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양적 팽창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전과 후의 여건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안재환 _ 대우그룹이 건재했던 1990년대까지는 우리 학교가 재정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 교육시설 확보부터 시작해서 후생복지, 첨단 기자재 도입, 산학협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지원이 이뤄지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 반면 대우그룹이라는 '온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대가 자체적인 대외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건전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성낙 _ '대우'라는 배경이 아주대학교의 경쟁력을 만드는 데 보이지 않는 '큰 씨앗'이 됐다. 지금은 모든 대학이 글로벌을 표방하고 있지만 1990년대 초중반 대우그룹이 전 세계에 진출해 활동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 및 동구권 국가의 학생들을 아주대로 초청해 교육을 시행했다. 글로벌이란 단어가 대학에 생소했던 시절에 이미 아주대에서는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대학교가 제일 먼저 글로벌화를 시행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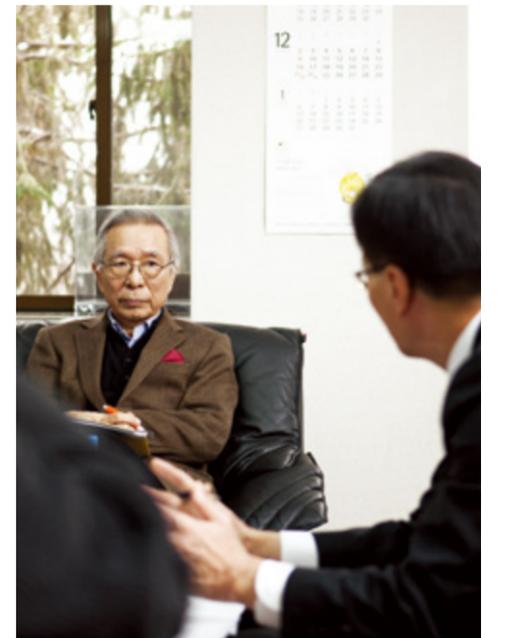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대에 입학하면 들어올 때 보다 나갈 때 더 우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을 두고 생각해 보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의 20년보다 그 이후의 80년을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송용진 도서관장
1978년 아주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자연과학대학 학장, 기초과학연구소 소장, 연구정보처장, 대학원장, 과학영재교육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도서관장으로 있다. 아주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철 _ 대우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례로 아주대 인근에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 및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대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당시 산학협력을 다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언론의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학교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아주대가 개교 40주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 부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송용진 _ 대학의 주요 기능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다. 아주대는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는 40년 역사에 비해 빠른 발전을 이뤄왔고 사회봉사 기능 또한 1990년 이



아주대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교육 중심의 대학’을 구현한 것에 있다.

대학 초창기부터 학생 교육을 중시해 왔는데 대학이 규모면에서 크게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을 중시하는 아주대의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지난 얘기지만 초창기시절부터 아주대 학생들의 카이스트 진학률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대학가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좋은 교육을 위한 교수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열망이 합쳐진 결과였다.

김철 前 총장직무대행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핵원료개발공단을 거쳐 1980년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공과대학 학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교학부총장으로서 총장 직무를 대리했다. 2004년 2월 정년퇴임했다.

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어학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이 신설된 덕분이다. 최근에는 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유치했다. 아주대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다.

안재환 _ 아주대는 이제 ‘좋은 대학’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탁월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연구 역량이고, 교수들의 근속연수가 높아지면서 연구 동력을 어떻게 끌어낼지가 당면 과제다. 지난 15년간 대학이 학부제로 운영되면서 전공 특성이 떨어지고 학과별 평가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융합이란 큰 주제 앞에 더 중요한 것이 학문단위의 경쟁력이다. 이런 점에서 학과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평가를 위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다. 학과별 연구 역량과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투자하겠다.

김철 _ 연구 역량이라는 것은 몇 개 학과가 이끌고 나가면 다른 학과가 따라 올라가기 마련이다. 하버드대하면 로스쿨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대 하면 떠오르는 몇 개의 ‘아이콘(icon)’ 학문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전반적 수준과 이미지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택적 탁월성(Selective Excellence) 개념을 강조하고 싶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과 함께 가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를 다 잘 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교육이라는 대학의 필수요소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충실한 연구가 반드시 교육으로 피드백되면 좋겠다.

이성낙 _ 우리만의 무엇,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주대는 단과대학과 병원이 지리적으로 같은 공간 내에 밀집되어 있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의학, 약학, 생명과학, 공학, 정보통신학 등 융합과 협업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길 하나만 건너면 광고테크노벨리가 있고 경기도에는 제약회사도 가장 많다. 이런 여건을 학교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학과 간의 벽을 낮춰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직에 있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입학하는 아주대

학생들은 실재 가진 능력에 비해 자신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아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철 _ 아주대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다. 바로 ‘젊음만 가져오십시오. 나머지는 아주대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카피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아주대 학교는 학생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원료에 잡물이 섞여있어도 제품은 잘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공장이듯 학교도 학생들을 입학 때보다 졸업할 때 더 훌륭하게 키워내는 곳이 좋은 학교다. 쪽 그래왔듯 아주대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줘 학생들을 신바람 나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만의 무엇,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주대는 단과대학과 병원이 지리적으로

같은 공간 내에 밀집되어 있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의학, 약학, 생명과학, 공학, 정보통신학 등

융합과 협업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길 하나만 건너면 광고테크노벨리가 있고

경기도에는 제약회사도 가장 많다.

이런 여건을 학교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성낙 前 의무부총장

연세대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990년 아주대학교 의대 초대학장으로 취임했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했다. 2003년 정년퇴임한 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가천의과대학교 총장으로 일했다. 현재 국제베제트병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성낙 _ 학교는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다른 대학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하고 있다는 것, 얘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교수가 있다는 것, 캠퍼스가 아름답다는 것 등 주변 환경을 세세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에 학생식당 ‘선인재’를 만들 때에도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의대 학생식당은 의과대학 학부모들이 만들어 주었는데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데 따른 것이다. 학교에 대해 맨 처음에는 지랑스럽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 자부심을 느끼게끔 만들어주어야 한다.

송용진 _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대에 입학하면 들어올 때 보다 나갈 때 더 우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을 두고 생각해 보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의 20년보다 그 이후의 80년을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만큼 대학에 들어와서의 발전이 더 중요한데 아주대는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안재환 _ 서울에 있는 역사 깊은 사립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주대 학교는 우수한 대학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역량사업이나 학부교육선진화사업 과제에 연속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모바일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 러닝 환경도 구축될 예정이다. 2013년에는 캠퍼스 내 휴게 공간이 더 늘어나고 인조 잔디구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학생들이 같이 가꾸고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학교의 좋은 정신이 더욱 발화되어 올해를 40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

응답하라, 1977년의 아주여!

어둠던 시절의 빛이여!

김상배(전자공학과) 교수



도전을 넘어서는 길을 찾고 열어 나갔다.
어두운 시절,
그러나 원천동산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지금, 그 빛을 어디에서 찾을까?

아지랑이 그윽하게 피어오르고 별 따스한 봄날, 노랑나비를 쫓는 봄나들이 같은 삶이 있듯 칠혹처럼 어둠과 추운 겨울밤을 칼바람 앞에서 지새워야 하는 날들도 있을 터. 어느 시인의 '그 어느 산모퉁 길에 어여쁜 님 날 기다리는'이라는 말처럼 우리네 삶이란 울듯 안을 듯한 꿈을 쫓는 여정이다.

운명 같던 곡절을 거쳐 대학에 입학했던 1977년 봄은 춥고 어두웠던 때였다. 유신 치하의 정치체제가 모두를 움츠리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산업발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과대학을 졸업한다 한들 앞날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던 때문이다. 그렇게 어둠과 추웠던 시절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원천동산에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었다. 바로 이한빈 학장님이셨다. 학보를 찾아보니 현재의 대우학원이 설립된 것이 1977년 3월21일이었고, 학장 취임식은 4월20일에 있었다. 학장님의 키워드는 미래와 창조였다. 그 누구보다도 미래를 정확히 투시하는 밝은 눈을 지니셨고, 그 어느 젊음보다도 더 열정적인 창조인이셨다. 그리고 그 바쁘신 속에서도 축제의 마당을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멋진 분이셨다.

그분의 미래에 대한 해안과 깊은 경륜은 그대로 학교의 시스템이 되었다. 엄정한 학사관리와 학업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체제 수립은 기본이었고, 공과대학의 산교육을 위한 산학협동과 연구소 설립은 시대를 몇 번 앞서는 선구적인 체제였으며, 지역내신제와 특별장학생제도는 모든 대학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다. 주요 과목은 연습시간이 추가되었고, 진도고사제도가 있어 학기 중에는 한눈 팔 사이가 없었다. 계절학기가 있어서 정규학기에 이수하지 못했던 과목은 방학 동안에 이수하여야만 했다. 종합연구소가 세워져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로 체계적인 연구가 대학에서 시작되었고, 학사담당 부학장과 기획담당 부학장을 쌍두마차로 하는 학교 체제도 이때 운영되었다. 학교의 미래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분의 미래에 대한 해안과 깊은 경륜은 또 그 대로 교육철학이 되었다. 급속히 국제화되고 산업화되는 당시 상황에서 어떠한 인재를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신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를 거쳐 탈산업사회를 살아갈 당시의 젊음들에게 닥칠 도전을 예견하고 걱정하셨을 뿐 아니라, 도전을 넘어서는 길을 찾고 열어 나가셨다. 어두운 시절, 그러나 원천동산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지금, 그 빛을 어디에서 찾을까?

1979년 10월26일 토요일, 마침 체육대회 날이었다. 학보사 기자로서 취재를 위해 아침 일찍 학교에 가니 교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휴교령이 내려진 것이다. 그 날로 그 학기는 끝나고 말았다. 그 가을을 어두움 속에서 처량히 보냈다. 추운 겨울 그리고 다시 맞은 봄, 하지만 그 봄은 더 참혹했다. 3월 한 달 수업으로 그 학기도 끝, 광주의 아픔과 함께 그 봄도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맞은 마지막 학기, 바람이 서늘해지면서 부쩍 초조해졌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꿈꾸어 왔던 KAIST의 입학시험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준비서류는 얼마나 많고(18가지로 기억한다), 공부해야 할 것 또한 얼마나 수두룩하던지. 2일 동안의 필기시험과 1차 합격자 발표, 이어진 면접시험을 거쳐 홍릉에

서 KAIST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1년 겨울, 그 추위 속에서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KAIST 입학시험장에서 만났던 그 많은 우리 아주대학교 동급생들이었다. 어둠과 추운 시절, 확률적 불가능을 뛰어넘고자 과감히 도전했던 뜨거운 가슴들이 그토록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그 겨울은 칼바람 속에서도 따뜻했었다. 비록 그 해에 곧바로 KAIST에 입학했던 친구들은 나를 포함 3명뿐이었지만, 그리고 1년 후 78학번 후배들의 도전은 찬란했다. KAIST 합격생 수 전국 2위! 그러나 그 성과가 77학번들의 뜨거운 도전 없이 가능했을까? 추운 겨울의 그 뜨거움이 오늘의 아주를 만든 것은 아닐까?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여서 저울추가 한참 기울어진 요즈음을 힘들다 하기보다 행복하다고 해야 할 터, 다가오는 추위를 함께 녹일 뜨거움을 그 벗들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원천동산을 비추던 그때 그 빛을 또 한 번 맞이하고 싶다.

Special Theme
Column 2
Ajou University
40th anniversary

아주의 사계가 길어 올려준 스무 살의 두레박

이은형(사회학과 92) 동문

“선배님, 사회인의 밤이 열리는데요. 참석하실 수 있나 해서요” 조심스럽게 말 건네는 12학년 후배의 목소리가 살가웠다. 11월 초에 열리는 이 행사를 위해 10월부터 몇 번이나 소식을 알렸던 후배가 고맙웠다. 사회학, 원천동, 교수님, 동기들, 선배와 후배들……. 다시 대학생이 되어버린 들뜬 마음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몇 학번이세요?”, “92학번이네요”, “와! 우리가 92년생인데…….” 아, 그렇구나.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이름표를 찾아주며 살짝 쭈뼛해진 후배들. 그들에게 내 학번은 이제 ‘고전문학’이었다. 일하는 사람으로, 또 한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내 나이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12학년 후배들과의 그 짧은 대화가 2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또렷이 확인하게 해주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다. 굴착기부대가 평촌 땅을 파내기 시작했다. 대학이라는 신세계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적응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 옆 동네에도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곧 고층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섰고, 우리 동네와 평촌을 가르는 2차선 1번 국도도 조금씩 넓어졌다. 그 후로 20년. 평촌은 사람 많고 짝 찬 신도시로 변화했고, 2차선은 10차선이 되어 밤낮으로 차들의 물결이 이어진다. 지금 평촌과 그 도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 살면서 난 가끔 내 대학 시절을 떠올리

곤 한다. 마치 내 스무 살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짧은 날의 성장을 지켜봐 준 것 같아서 왠지 모를 일체감마저 밀려온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판을 바꾸어버렸던 1992년. 사회학과라는 울타리에서 만난 39명의 우리는 어땠었다. 수줍게 만난 오리엔테이션, 인문관 앞 잔디 위로 동그랗게 앉아 부르던 자기소개 노래, 흥미롭고도 때론 어려웠던 수업시간, 때로 몰려다니던 아향과 학생식당, 강동 학과방, 뛰고 소리 질렀던 노천극장, 수원역으로 향하던 저녁 스쿨버스……. 강의실을 빠져나와 도서관으로 또 동아리방으로 흩어지고, 다시 등나무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고, 지나가는 ‘전교생’을 바라보고, 다시 강의실로 뛰어가면서 우린 ‘대학’이라는 곳을 탐색했다. 이상하다. 그 시절 풍경들은 여전히 살아 있어 내 인생의 어느 방에서 여전히 왁자지껄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우린 노래방에서 “난~알아요!”를 뜨겁게 외쳤다. 아, 노래방이 우리 르 생겨난 것도 이 무렵이었다. 92학번이라며 학교 앞 ‘구이구이’집에 자주 모였고, ‘부산집’과 ‘할매집’의 부대찌개를 비교하며 술을 배웠다. 최고의 안주이자 반찬이었던 ‘경남식당’의 돼지김치찌개는 지금도 뜨끈하고도 기막힌 맛을 잊을 수 없다. 친구들과 나눠 먹던 밥과 자장면과 술이 나를 살찌웠고, 수없이 오갔던 생각과 이야기들이 나를 자라게 했다.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어서 더 예뻐던 그때. 난 아주에서 무얼 길어 올렸을까? “끼 있는 녀석을 만나고 싶다”는 현수막 글귀에 훌쩍 반해 광고동아리(애드브레인)에서 내 미래를 꿈꾸었고, 더 넓은 세상이 궁금했고, 이상을 못 따라가는 현실에 힘들어했고, 가슴 떨리는 사랑도 해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치열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마음 흐르는 대로 열심히 느끼고 노력하자던 다짐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그때엔 더 무서울 게 없었으니 오죽 했으랴.

그렇게 이주는 나에게 생이었다. 매일 길어 올린 두레박에서 내가 나왔다. 봄엔 도서관 앞 흐드러진 빛꽃이 감성을 매만져주었고, 여름엔 피약벌 아래 지지 않는 벼를 가르쳐주었다. 또 가을엔 노랗고 붉은 잎들이 더 익으라고 다그쳤고, 겨울엔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짧은 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학교의 슬로건이 그저 슬로건으로만 읽히지 않았다. 어느새 나를 지켜내는 작은 무기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일까. 졸업하고도 신문에 실린 학교 광고나 기사를 보면 가슴이 뛰었다. 대학종합평가에서 7위를 했던 어느 해에는 몇 날 며칠이 행복했다. 신문 전면광고에서 “이름값? 사람값!” 이렇게 쓰아붙일 줄 아는 학교가 고맙기도 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굴레가 뭐 그리 중요해? 네가 바꾸면 되잖아,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 아주가 이제 마흔이 된다고 한다. “까짓, 마흔이 뭐 대순가?”하며 작년에 덜컥 넘겨버린 숫자인데, 우리 학교에게 숫자 40은 꽤 남다른 의미가 될 것 같다. 생채기 많던 청춘의 숲을 지나와 이제 큰 숲을 이룰 아릅드리나무들을 심고 있으니 말이다. 난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닿을까 매일 고민하는 나무. 그러면서도 혼자만 자라지 않는 나무, 햇살도 나눌 줄 아는 나무. 비바람에 즐겁게 춤출 줄 아는 나무.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새도 두어 누구든 목축이게 하는 나무면 어떨까. 여전히 젊은 대학 아주가 키워낼 나무들을 기대하며, 나만의 나무를 심어본다.



2013
New Year
Vol.4

A J O U N I V . N E W S

인물동정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14명 최종합격

아주대학교가 2012년도 제4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아주대는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1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배출해왔다. 현재 경영대학에서는 회계사 준비반인 양지현(지도교수 김광윤)을 운영하고 있다. 양지현 68명의 실원들은 도서관과 생활관 남제관에 위치한 고시반에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합격자들에게는 장학금도 지원된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명단

강영호(경제03)/신규원(경제04)/이우주(경영04)/김용현(경영05)/남기정(경영03)/정병훈(경제04)/최호주(수학05)/김지민(경영01)/이경화(경제06)/김성연(경영03)/이동현(심리00)/강혁(경영07)/박윤배(경영04)/김의성(경제99)

안재환 총장,

뉴욕 스토니브룩대학 복수학위생과 간담회

안재환 총장이 지난 9월9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스토니브룩대학을 방문해 복수학위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뉴욕주립 스토니브룩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은 아주대학교의 자매 대학으로 학생들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양교의 학위를 함께 취득할 수 있다. 스토니브룩대학 인근 한식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학생 35명과 안재환 총장이 현지 생활과 복수학위 프로그램, 장학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미주 지역 아주동문 간담회 열려

대학발전본부 주관으로 지난 9월11일과 14일, 각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아주대 동문 간담회가 열렸다.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2명과 석병엽 샌프란시스코지역 동문회장, 손기혁 LA 지역 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 학교 동문 총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총연합회를 발족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아주 동문회 총연합회' 출범을 준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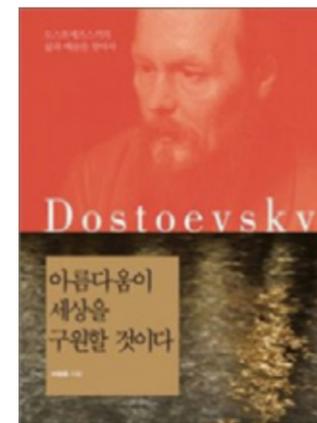


이용희 학생,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최종인증자로 뽑혀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학부 이용희 학생(06학번)이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2기 과정의 최종 인증자로 선발됐다. 이용희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아울네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해 '뉴스잇'이라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 그는 "소프트웨어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병훈 교수 저서, 문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이병훈 교수의 저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충실한 전기다. 이병훈 교수가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재학하던 시절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

하면서부터 모이든 방대한 자료에 기초해 그가 직접 도스토옙스키의 삶의 여정을 따라 취재한 기록을 엮었다.

이삼구-이성환 경영대학원 동문, 대통령 표창 받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삼구, 이성환 동문이 9월27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해동산전 대표이사인 이삼구 동문은 대기업-협력사간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공급 사슬망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전기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성환 동문은 협력사와의 기술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유일의 '원인 플라자'를 오픈, 13개 협력사를 입주시킨 주인공이다.



이성환 동문



이삼구 동문



제38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주최, 교육 현안 논의

아주대학교가 제38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1월22일과 2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안재환 아주대 총장을 비롯해 고건 전주대 총장, 김형태 한남대 총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박희종 관동대 총장, 서강석 호남대 총장, 신일회 계명대 총장, 이철 울산대 총장이 참석했다. 행사 첫날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아주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이 '대학환경의 변화와 지역대학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계명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분열 교수, 제1회 탄소문화상 학술상 수상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이분열 교수가 대한화학회 제1회 탄소문화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화학회는 이분열 교수에 대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분자를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금속촉매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학술적 성과를 이룩했다"며 "개발된 촉매로 합성된 이산화탄소 고분자의 산업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실현, 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최상돈(생명과학과) 교수
 지난 9월, 최상돈(생명과학과) 교수가
 ‘유전자 백과사전’을 발간했다.
 세계 최초로 발간된 영문판 유전자
 백과사전의 등장에
 세간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글 정우준(홍보실)

세계 최초 유전자 백과사전을 만들다

유전자 백과사전. 아직까지 유전학 분야에 용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도 놀랍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주대학교의 교수
 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사전’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
 는 요즘이기에 유전자 백과사전이 당연한 것처럼 보
 일 수 있지만 이는 콜럼부스의 계란과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아무튼 유전자 백과사전으로 인해 세상은
 유전자 백과사전이 없던 시절과 있는 시절로 구분지
 어질 수 있게 됐다.

최 교수는 왜 유전자 백과사전을 발간하게 되었을
 까? 그는 발간 배경에 대해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25년 동안 매 실험마다 필요한 유전자를 따로따로 공
 부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웠다. 유전자를 설명하는
 책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부분적이었고, 설명의 수준
 도 학술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백과사전의 아이디어
 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재직 시절 처음 가지게 됐고,
 2006년 아주대로 오면서 구체화시키게 됐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학술 전문 출판사인 스프링거 출판사가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면서 백과사전 발간작업이 시작
 된 것이다.



유전자 백과사전은 현재 알려진 25,000개의 유전자
 중 신호전달에 관련된 유전자 4,000개를 선별해 내용
 을 정리했다. 각 유전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 혹은 그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우선 선정해 원
 고를 부탁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을 알리는
 네이처 논문 참여, 노벨상 수상자인 알프레드 길먼 연
 구팀의 책임연구원 등 최 교수의 화려한 이력이 집필
 진 모집에 큰 도움이 됐다. 최 교수는 수 천통의 이
 메일을 주고받으며 집필을 총괄했다. 말이 총괄이지
 800여 명의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을 일일이 섭외하
 고, 원고를 받아서 정리하는 모든 잡일들까지 최 교수
 가 혼자서 진행한 것이다. 무려 4년에 걸친 대작업이
 었다.

최 교수의 유전자 사전은 학술용 백과사전임에도 지
 루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컬러로 된 그림을 많
 이 넣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고, 유전
 자가 발견된 역사와 배경, 작용원리, 발견 과학자 등
 을 적어 틀에 박힌 지루한 유전자 설명에서 벗어나려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가 어떤 질병과 관련이
 되어있는지, 치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예
 측까지 되어 있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
 이 마련했다.



전 세계의 유전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한국과 아주대학교를
 각인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백과사전 발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물었더
 니 집필에 참여해줄 교수들을 섭외하는 것이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 교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있을 때는 소속만 밝혀도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집필
 에 참여해줬었는데 국내에 들어와 소속이 아주대학
 교로 바뀌자 갖가지 이유로 거절하는 현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전한다. 그러면서도 그 교수들의 심
 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요청을
 받은 교수들 입장에서 최 교수의 이력서를 살펴보
 지 않는 이상 모국어가 영어도 아니고, 아주대라는 한
 국의 조그만 대학에 있는 교수의 요청을 그대로 믿기
 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든 4년의 시간을 막 끝냈지만 최 교수는 그 과정들
 다시 한 번 되풀이하려고 한다. 내년엔 증보판을 만들
 겠다는 것이다. “나는 젊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 일
 을 시작했고 “아직도 나는 젊다”라는 생각에 책의 완
 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이다. 증보
 판에는 여러 사정들로 인해 누락된 유전자 정보들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교수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
 다. 첫째가 교육, 둘째가 연구, 그리고 셋째가 사회봉
 사. 사회봉사는 자신이 없지만 교육과 연구는 누구보
 다 열심히 한다고 자부한다. 평일은 남들과 같이 교육
 과 연구를 하는 데 매진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백과사
 전 발간은 남들이 쉬는 주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대에 오면서부터 주말을 쉬 적이 없다”고 했다.

그토록 고단한 대장정을 이어왔지만 최 교수의 얼굴
 에서는 피로 보다는 활력과 자부심이 엿보인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수십 년간 통용될 수 있는 교재
 를 쓰신 분이 없고, 노력하시는 분도 거의 없는 것으
 로 안다. 백과사전이 유전자 공부에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했어야 했다. 이번에
 도움을 준 800여 명의 유전자 분야 전문가들도 비슷
 한 생각으로 작업에 무보수로 참여했다고 믿는다. 힘
 들게 작업한 만큼 많은 생물학도들이 이 책으로 공부
 에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유전자
 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한국과 아주대
 학교를 각인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
 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아주대생들에게 “아주대 학생
 들의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상위 20%는 정말 뛰어나다. 하지만 자신을 과
 소평가해 지속적으로 노력, 도전하지 않고 편하고 획
 일화된 길로만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깝다. 하고
 싶은 길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탱할 굳은 심지를 가
 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미선(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경기지역암센터로 지정된
아주대병원엔 경기도 주민의
암 예방 및 관리,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해 온

**전미선(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전인의학에 입각해 암 진료와 치료
이후에도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환자를 배려하는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소통을 통한 전인적 치유에
나서고 있는 전미선 교수를 만났다.**

글 문효근(편집실)

소통과 전인의학으로 암에 맞서다

전미선 교수는 미국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터프츠 의과대학과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8년간 근무한 바 있다. 1993년에는 미국 암학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의사상’을 수상할 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어려므로 좋은 조건과 환경을 뒤로 하고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가족을 위해서라고. 사실 수년 전에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복귀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이 역시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전 교수의 전공은 방사선종양학으로, 미국에서 만난 흥완기 교수의 권고로 전공하게 되었고 전공의 수료 후 당시 담당과장이 맡던 부인암을 자연스럽게 전담하게 되었다. 이때부



터 주로 부인암과 유방암을 다루게 되었고, 같은 여성으로서 환자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잘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여성암을 전공으로 하는 중양전문의로 28년 동안이나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사로서의 진료철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 교수는 “병원 식구들에게도 늘 당부하는 것이지만 환자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양전문의가 가져야할 중요한 덕목으로 ‘소통’이라는 화두를 꼽아 주었다. 환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살갑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교수 본인도 양성중양으로 투병한 적이 있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조기진단 암은 완치율이 높고 전이되거나
재발할 확률도 적습니다.**

**암 선고가 바로 사망선고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시련을 딛고 일어나 건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대병원이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암센터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전 교수는 “우리 병원은 우수한 암 전문 의료진 확보는 물론 활발한 암 연구 실적, 환자 중심의 운영 및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의료사업 경력을 인정받아 경기지역암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장기별 암센터로 특색화 진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 이후에도 암 환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증상 완화 프로그램으로 전인적인 케어를 하는 점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현재 통합의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발하게 운영 중인데 이완, 명상, 요가, 미술, 그리고 원예 치료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법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찾기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환자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암 환자의 전반적인 치유능력 향상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미선 교수는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다. 통합의학 프로그램도 전 교수의 지칠 줄 모르는 탐구정신과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전 교수는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전인의학의 개념으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전 교수가 말하는 전인의학이란 무엇일까? 환자의 병은 이전에 앓았던 질병, 생활 태도, 심리적 요인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발병하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의 형태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자를 질병의 모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해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치료하고 돌봐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한방을 함께 응용하는 양한방 임상병원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점에 입각해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통합의학클리닉을 개설하고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앞으로의 희망사항에 대해 말하는 전미선 교수. 더불어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자 “부지런히 가지를 치면 튼실한 열매가 열리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열린 마음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가끔씩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생활의 시간도 갖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암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는 “조기진단 암은 완치율이 높고 전이되거나 재발할 확률도 적습니다. 암 선고가 바로 사망선고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시련을 딛고 일어나 건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도 전해 주었다.

현재 전 교수는 경기도의 지원에 힘입어 경기지역 암 환자의 심리, 사회, 경제적 요구를 파악하고 돌보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관련 조례안에 따른 더 나은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암 치료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전미선 교수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길 기대해 본다.



요즘 대학생들은 무척 열심히 공부한다. 시험을 앞두고 며칠을 밤새워 책과 강의노트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급급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개념조차도 설명하지 못하는 게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아주대학교는 이러한 현상이 학생들의 수동적 공부 방법에서 기인한다는 판단 하에 ‘공부 방법’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2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URP)’이 그것이다. 글 이슬(홍보실)

아주대의 실험, ‘공부 방법’ 바꾸기

2012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URP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은 교육부 주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ACE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본격 시작했다. 이전에 일부 학과 및 교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 눈에 띄는 성과를 냈던 프로그램을 전교적으로 확대한 것. 앞서 강혁(화학) 교수는 학부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하는 ‘화학특수연구’라는 과목을 진행해 국제 학술지에 5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김도영(경영학) 교수 역시 학부생들을 비교과과정 연구에 참여시켜 SCI급 논문을 2편 내놓은 바 있다.

학부생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인 혹은 팀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잡아 지도 교수와 상의한 후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주제 선정부터 자료 준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논문 작성에 있어 모두 학생 본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연구를 수행하는 학부생들이 지도교수의 단순 연구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학교는 ‘학부생 연구 위원회’를 만들어 지도교수들에게 지도방법을 교육했고 팀당 5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지난 6월 발대식을 기점으로 연구에 돌입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총 460명. 프로그램이 3~4학년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대 3~4학년생의 15% 가까이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된다. 약 5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 가운데 아주대가 처음 시도했다.



지난 10월29일과 30일 종합관에서는 ‘UR DAY’라는 이름으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중간성과 발표회가 마련됐다. 연구 내용을 요약한 포스터 전시와 함께 학과별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의 결선 발표가 열린 것. 올해 학부생 연구에 참여한 187개팀 가운데 총 45개팀이 결선무대에 올랐다. 주제의 참신성과 연구 방법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 이공계열에서는 미디어학과의 권오현, 이재호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고 인문계열에서는 사학과의 강민주, 이유정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첫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은 2013년 2월까지 이어지며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연구를 마무리 짓고 논문 작성 작업을 진행한다. 우수 참가자 일부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학부생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구물을 보면 독창적이거나 흥미로운 주제가 다수 눈에 띈다. 특히 최신 이슈나 트렌드를 소재로 잡아 사회 현상을 좀 더 깊이 다각도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큰 목표로 잡은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라는 과제에 학생들이 부응한 것.

일례로 경영학과 3명의 학생이 ‘스마트폰 구매에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 분석(유인철, 김현우, 전근수)’이라는 연구를 주도했고 ‘멘탈붕괴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관점(심리학과 장진구, 이지혜)’이라는 연구주제도 나왔다. 그밖에도 ‘SNS 사용자 행동조사(e-비즈니스학과 김우식, 조인제, 김순미)’, ‘보육시설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 최적화(기계공학과 박준용, 권용민)’,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임시주택(건축공학과 박경수)’이라는 주제가 흥미롭다.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주관한 박은덕(화학공학과) 교수는 “올해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고 일부 결과물은 국제 학회에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 대학원이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는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각 학과들에서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 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주대 교무팀의 윤혜정 팀장은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이를 교과목으로 개발하고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ACE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부생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Interview

URP 대상 수상자
사학과
강민주 학생, 이유정 학생



이유정 학생



강민주 학생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수업시간에는 주로 논문을 찾아서 그것을 공부하고 요약하는 일 정도까지만 해왔거든요. 연구 범위를 좁힌 뒤 기존에 나와 있던 논문들을 찾아 비교 분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주제를 정한 뒤에는 일사천리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제1회 ‘2012 학부생 연구 사업(URP)’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UR DAY’에는 총 45개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문계열 대상을 차지한 사학과 강민주(4학년), 이유정(3학년) 학생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

‘일본사’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탐을 이룬 두 학생의 연구 주제는 ‘사치와 검약의 공존-에도 조닌문화’다. 조닌문화란 에도 시대(1603~1867) 일본에서 유행하던 상인 및 수공업자의 문화를 말한다. 조닌은 이 시대에 급격히 부를 축적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었던 수공업자 계층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유정 학생은 “당시 일본 상인들에게 ‘사치’와 ‘검약’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던 역사적 맥락을 발견하고 이를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보고자 했다”며 “부의 과시, 사치 등의 부정적 맥락으로 평가 받았던 당시 일본 상인들의 소비수준은 그들의 불안한 경제력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었고 하층 계급으로서의 저항수단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 가운데 최하위 계층으로 재력에 비해 대우받지 못했던 이들이 상위 계층과 한데 섞이기 위해서 다도, 바둑, 꽃꽂이 등의 고급유희에 참여하면서 고가의 도구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지배계층이 이를 ‘사치’로 규정했다는 얘기가. 공고한 신분제 사회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인이 있었는가 하면 기존의 체제에 순응, 근검·절약을 우선순위로 삼은 상인도 공존했다는 게 두 학생의 결론이다.

일본 특정 계층의 문화를 깊숙이 그리고 다각도로 공부하면서 두 사람은 크고 작은 시행착오에 부딪혔다. 하지만 지도교수인 김종식(사학과) 교수와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주고받고 연구과정을 체크하면서 6개월여의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강민주 학생은 “그동안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발표가 많은 수업은 잘 듣지 않았지만 학부생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며 “공부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논문 작성’에 대한 연습도 해볼 수 있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은 꼭 학부생 연구에 참여해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2013 New Year 24 + 25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수상한 아주인 3인
홍상훈, 길보미, 권은비 학생

내가 사는 동네, 그곳의 희망을 구체화하다

꾸준히 공모전 수상 소식을 전해온 아주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17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것. 수상작의 제목은 ‘보존, 그 이상의 공존’으로 수원 화성과 인근 주거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한 작품이다. 글 이슬(홍보실)

영광의 주인공은 건축학과 홍상훈(5학년)과 4학년 길보미, 권은비 학생으로 이들은 건축학과 소학회 ‘바로서기’의 선후배다. 공모전 이후에도 작업실을 떠나지 못하고 각종 과제와 학과 공부에 열심인 이들 세 명의 아주인을 만났다.

“수원 토박이로서 수원화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이번 작품의 바탕이 됐습니다. 성곽과 주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수원 화성이 진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홍상훈)”

이번 공모전 출품작은 홍상훈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화성의 동문(東門)인 창룡문 근처의 마을과 학교들이 마치 성곽 안의 또 다른 성처럼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문화유산 화성과 주민, 관광객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공간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존, 그 이상의 공존’의 배경이 된 곳은 연무초등학교와 인근 공용 주차장 부지로 세 명의 아주인이 새롭게 구성된 공간에는 주민·관광객을 위한 커뮤니티와 한옥 게스트하우스,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화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창룡문 부근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인터뷰, 수원시 도시기본 계획 조사 및 연구, 관련 언론보도 리서치 등을 다각도로 진행했다.

홍상훈 학생은 공모전 수상팀의 팀장에게 부상으로 주어지는 열흘간의 미국 뉴욕 건축물 답사 여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동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할 예정. 이후 건축학 전공자와 도시계획 전공자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인이 되고 싶다는 게 그의 목표다. 공모전 수상은 선배의 공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동급생 길보미, 권은비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길보미 학생은 “선배와 함께 공모전 출품을 준비하면서 공모전의 성격을 파악하고 핵심을 짚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얻었다”며 “새 학기에는 보다 주도적으로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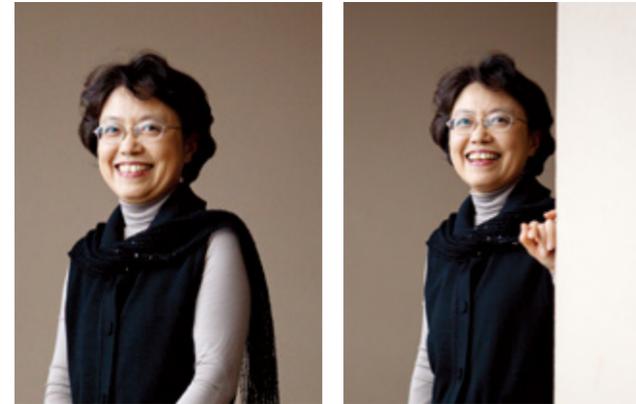
저출산 세대의 여성과 남성

이선이(사회학과) 교수

지난 가을학기에 ‘일, 가족, 행복’이라는 교과목을 새로 개설했다. 대학 교육의 대부분이 전문지식 습득과 직업능력 배양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각을 돌려 가족을 비롯한 사적 영역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생애 전망을 세워 보고 자신의 삶을 거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조망해 보기도 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나 행복의 차원에서 성찰해 보게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취지다. 강의는 여러 분야의 교수들이 돌아가며 맡아 진행했지만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 간의 토론에 있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서로 잘 알지 못하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어색함을 털어버리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들을 진솔하게 털어 놓

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공감하고 질문도 하고, 더 나아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 대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의 단편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 중 한 토막을 여기에 소개한다.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그 날의 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었는데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을 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어느 것을 더 바라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것, 아니면 한 명이 돈 벌고 (주로 남



의식이나 제도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추진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기보다는 공유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편이겠지요) 한 명은 육아와 가정을 책임지는 것,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인가요?”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했더니 의사표시를 한 29명 중 21명이 맞벌이를 선택했다.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은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대세였다(14/20명). 이들은 지금과 같은 고용불안정의 현실에서 홀부양자가 되는 것은 불안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부양하겠다는 남학생들은 부모가 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성 부양자의 전업주부 아내가 되겠다는 한 여학생은 이런 이유를 댔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혼여성은 직장에 다녀도 어차피 가사일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런 이중노동에 시달릴 바에야 전업주부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에게 이롭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다른 여학생이 말하기를 ‘자신이 비록 맞벌이 편에 손을 들기는 했지만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날 참석한 학생들 중 내가 가장 특이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은 여학생 아홉 중에서 둘, 전업주부를 선택한 쪽이었다. 그 선택이 놀라웠던 것이 아니라, 의외의 학생들이 그 쪽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놀라웠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발언도 거침없이 하고, 과제로 써 온 에세이를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는 등 활발하고 패기 있어 보이는 학생들이었다. 더구나 그 중 하나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상이 달라진다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것이라는 행복론을 학기 초에 피력하였던 학생이었다. 의외라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던 나를 향해 그는 힘 빠진 얼굴로 이런 말을 하였다. “일을 해 보니 너무나 피곤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에 담긴 상황은 흥미롭게도 아마도 마사히로가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에서 서술하는 일본 사회의 현실과 닮은꼴이다. 요즘 일본에는 전업주부를 꿈꾸는 젊은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스트레스 많고 차별에, 발전 전망도 어둡고 보상은 신통치 않은 직장생활을 하느니 전업주부생활이 낫겠다고 여겨 전통회귀를 꿈꾼다. 그러나 저성장 체제 속

에서 그런 여성들이 찾는 남편감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 맞벌이를 선호하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데다, 홀부양자가 되겠다는 남성들의 경우 안정된 직업기반을 확립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큼 결혼을 늦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커리어 개발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보기에는 결혼 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기에 이들은 결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찾는 남성은 결혼시장에서 줄어들고, 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이 찾는 여성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마사히로에 의하면 만혼과 그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하려는 사람들과 그들이 찾는 대상이 서로 합치하지 않는 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특히 여성)들이 가족보다 직업을 더 중시하고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흔히 만난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현실을 보면 오늘날의 저성장 체제 하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이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식이나 제도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추진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기보다는 공유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은 여전히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여학생들의 걱정에 대해 맞벌이를 옹호하는 한 남학생이 이런 대꾸를 했다. “저는요, 맞벌이의 전제조건은 가사노동도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일을 하는 만큼 저도 집에서 똑같은 분량의 가사노동을 할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의식면에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마음먹은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이루어지면 양성평등과 가족친화의 사회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터인데, 갈 길이 멀게만 느껴져 솔직히 답답한 심정이다.

제17회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인종과 국적을 떠나 모든 아주인이 함께 동참하고 즐기는 '제17회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가 11월1일 아주대 텔레토비 동산에서 개최되었다. 'Ajou! It's a Small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40개국 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헥토르 곤잘레스 우루티아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외교사절도 자리를 함께해 축제를 즐겼다. 국가별로 마련된 40여 개의 부스에서는 각국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선보였고, 무예시범과 줄다리 기,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도 진행되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아주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각자 조를 꾸려 장기자랑을 준비했고, 힙합댄스 동아리 비트(Beat)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공연을 펼쳐 열띤 호응을 얻기도 했다.



Ajou! It's a Small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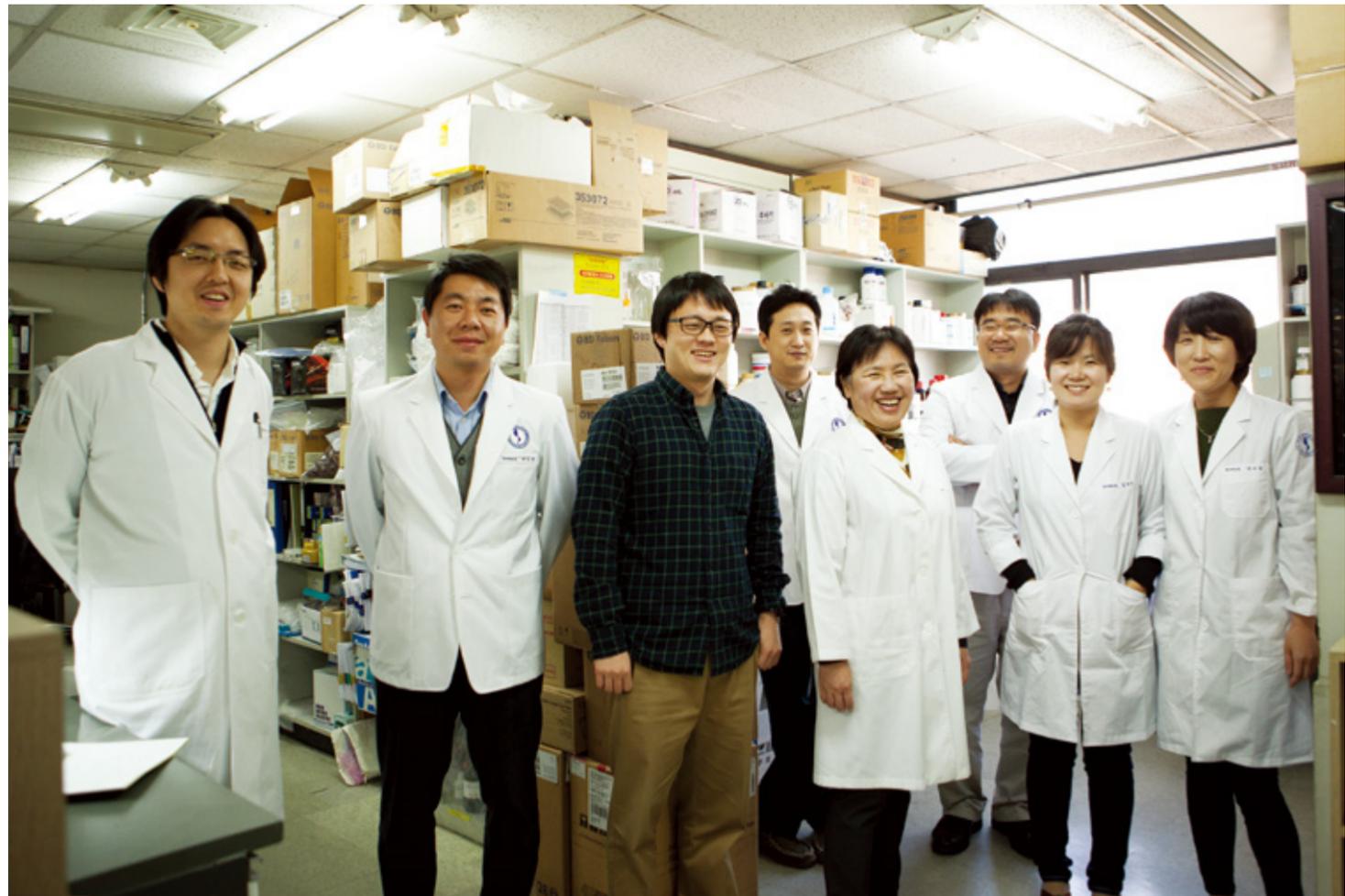


1.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학우들. 이번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는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2.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 참여한 여러 국내의 학우들이 함께 참가한 줄다리 기 대회는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3. 이날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는 외교사절도 자리를 함께 해 신명나는 축제를 즐겼다
4. 약기까지 동원해 즉석으로 콘서트를 펼쳐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5. 각 나라별로 마련된 40여 개의 부스에서는 자국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선보이는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벤트가 열렸다.





아주대학교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이하 센터)가 올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기초의학 연구센터(MRC)*’에 재지정 되는 쾌거를 올렸다. 2003년에 MRC로 처음 지정되어 9년 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친 후 다시 선정된 것으로 이는 1기 센터의 연구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자 향후 7년 동안의 2기 연구센터의 재원 확보를 의미한다. 그 쾌거의 현장을 찾아 MRC 재선정의 의미와 내용, 센터의 목표와 방향을 찾아본다. 글 이병유(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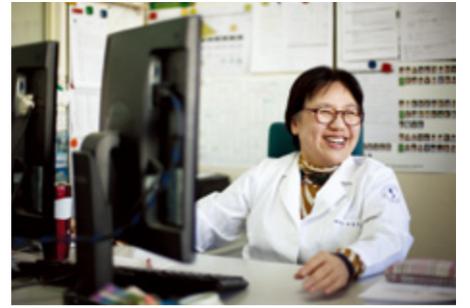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

모든 것 위에 ‘연구’

올인(All in)의 결과

의학관 4층, 크고 작은 장비 사이를 지나 센터로 든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와 동선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MRC 선정으로 센터는 약 60억 원을 지원받았던 1기에 이어 향후 7년간 약 70억 원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는다. 2019년까지 센터의 안정적인 연구재원을 확보한 것이다.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뭐 이정도 했으면 한숨 돌려도 되잖아!’ 센터 분위기가 느슨할 법도 한데 센터장 주일로 교수는 연구의 고삐를 놓지 않는다. 주일로 센터장은 연구자의 제1덕목으로 머뭇거리기 없이 올인(All in)을 꼽는다. 주 교수 역시 지난 연구기간 동안 그것을 몸소 실천했다. “1993년 아주대학교에 부임한 후로 ‘연구’를 모든 것 위에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올인’ 했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 주말 출근을 했습니다. 취미로 연구를 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요. 지난 9년간 밤낮으로 함께 고생하며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해준 센터연구원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주일로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장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사업에는 58개의 센터가 신청해 5개의 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이중 1기 선정에 이어 2기에도 재선정된 센터는 이곳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가 유일하다. 1기 센터의 연구성과가 그 어떤 센터보다 뛰어났다는 증거다.

SCI 논문 106편, 석박사 81명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아주대학교 기초의학의 연구성과를 목도하며 주일로 센터장은 20 여 년 전을 잠시 회상한다.

“제가 아주대에 부임할 때만해도 순수하게 국내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SCI** 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도 1,000~2,000만 원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의 연구력 성장과 발맞추어 아주대학교의 연구역량은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가 증명합니다. 1기 센터에서 총 106편의 SCI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중에는 논문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 10 이상의 최상위 논문***도 2편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이미 2000년에 기초의과학 연구논문의 기준을 SCI 상위 20% 논문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성과는 우수한 연구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기 센터는 박사 32명을 포함해 총 81명의 석·박사를 배출했다. 또한 기초의학연구와 임상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개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년간의 예비연구(Pilot Study)를 진행한 임상교수가 3단계 연구를 시작할 때 센터에 합류해 기초의과학 연구교수와 함께 해당연구를 진행하는 ‘공동연구 시스템’을 구축했다.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몸이 외부의 미생물이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반응’인 ‘염증(炎症 Inflammation)’. 충혈이나 발열, 부종, 통증 등이 모두 염증반응이다. 염증에 대한 인식은 이미 고대부터 있었지만, ‘염증반응을 조절하여 질병을 통제하겠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래의 일이다.

“면역학, 약리학, 생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만성질환에 접근한 결과, ‘암, 당뇨, 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염증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

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증반응을 조절했더니, 만성질환의 증세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는 ‘완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만성질환으로 발생하는 큰 고통이나 이차적인 질병 없이 ‘병을 안은 채 살아간다’는 개념인 것이죠. 이것은 만성질환에 대한 접근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초-임상 역량 겸비, 국제적 네트워크

2기 센터의 연구방향도 염증반응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이다. 첫째는 기초 연구로서 염증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인자와 타깃을 찾아내는 것이다. 주일로(약리학), 김은영(의과학), 최용준(미생물학), 우현구(생리학) 교수가 이를 연구한다. 둘째는 간과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반응에 대한 연구로서 간은 윤계순(생화학), 강영(의과학), 박태준(생화학) 교수가, 뇌는 조은혜(약리학), 백은주(생리학), 박상면(약리학), 김병근(의과학), 서영호(약리학) 교수가 해당연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하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역량을 모두 겸비한 이른바 ‘의사과학자(Physician scientist)’를 길러서 훌륭한 몰모델로 만드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또한 영국 에든버러 대학(Univ. of Edinburgh)의 염증 연구센터(Center for Inflammation Research) 등 염증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센터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주대학교의 인지도는 물론 기초의과학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센터의 주요 과제로 꼽을 수 있다.

* 기초의과학 연구센터(MRC Medical Research Center)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선도연구센터’의 세 분야 중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센터(기초의과학 MRC, 이학 SRC, 공학 ERC)

** SCI Science Citation Index(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Index)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인용 횟수 등으로 급이 나뉜다.

*** SCI 중 최상위급 학술지인 CNS(<Cell>, <Nature>, <Science>)의 바로 아래 단계의 과학저널로서 <Molecular Cell>, <Genes and Development> 등이 있다. 2009년과 2012년, ‘염증(Inflammation)’에 대한 주일로 교수의 논문과 김은영 교수의 ‘생체시계(Circadian Clock)’ 논문이 각각 게재되었다.

2013
New Year
Vol.4

A J O U U N I V . N E W S

행사소식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와 MOU 체결

안재환 총장이 지난 11월15일, 버틸 앤더슨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총장과 만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난양이공대학은 1955년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국립 종합대학교로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매긴 세계 대학랭킹에서 지난해 58위를, 올해 47위를 차지했다. 소의영 의무부총장, 임기영 의대학장, 이범진 약대학장, 김민구 기획처장, 이윤환 의대 연구부학장, 김재호 분자과학기술학과장, 민병현 전 의료원 연구지원 실장, 윤계순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도 안 총장과 함께 난양이공대를 방문해 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MOU에는 학생 및 교수 교환, 겸임 교수 파견 등의 인적교류는 물론 사이버 강의와 인텐시브 강의를 함께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대학의 교수들은 상대 학교의 박사학위 과정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다. 한편, 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난양이공대학의 교수 5명이 11월말 아주대 캠퍼스를 방문했다. 2013년 1월에는 아주대 공과대학 학생 35명과 김재호 교수가 자기개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난양이공대를 방문한다.



아주 CPA-CTA포럼 창립 총회 개최

9월26일 오후,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아주 CPA-CTA 포럼 창립 총회가 열렸다. 이로써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동문들의 정보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총회에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동문들과 안재환 총장, 강태헌 총동문회장, 한봉희 경영대학장, 이주희 경영학과 교수, 이덕현 경영학과 교수,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포럼 회원들은 회장으로 김관균 동수원세무사협의회장(경영 81)을, 부회장으로 김천호 세무사(경영 85)를 선출했다. 안재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문가로서 지금의 자리에 당당히 서 계신 여러분은 후배들에게 멋진 롤 모델”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융합 주제로 관리자 워크숍 열려

2012년도 아주대 관리자 워크숍이 ‘아주융합(亞洲融合)’이란 주제로 10월18일과 19일 양일간 엘리시안 강촌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안재환 총장, 소의영 의무부총장 등 학교와 의료원 보직자 총 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소의영 의무부총장의 의료원 현안보고, 김민구 기획처장의 학교현안 발표,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민구 기획처장은 최근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관련해 세부지표별 성과와 추이를 설명하고, 해당 부서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안보고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8개 조로 나누어 ▲융합을 위한 조직문화 방안 ▲학교 평판도 제고 방안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고교생 대상 ‘아주 특별한 랩 투어’ 성황리에 종료

아주대학교 인근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아주 특별한 랩(Lab) 투어’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투어는 지난 10월23일부터 일주일 간 열린 대학원-연구 FAIR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23일과 30일, 이틀 간 개최된 ‘아주 특별한 랩 투어’에는 총 1,100여명의 고교생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아주대학교 소개와 대학 입시 및 진로에 대한 특강을 들은 뒤 공동기기센터를 방문했다. 연구 FAIR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전자공학과, 분자과학기술학과, 컴퓨터공학과, 미디어학과, 지식정보공학과 등의 연구실을 견학했다.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사실, 매우 학술적인 말 ‘소프트웨어(Software)’, 그것의 구현과 그로 인한 편의는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라는 그 무한한 대양(大洋)을 향해 아주대학교의 작은 탐험선 한 척이 역사적인 진수(進水)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3년 아주대학교 건학 40주년에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이석원(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원장에게 탐험선의 항로를 들어보았다. 글 이병유(편집실)



소프트웨어의 신항로를 모색하다

5년간 80억 지원, 카네기멜론대학 현지 연구

올 7월 18일, 한 통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아주대학교가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이로써 아주대는 5년간 총 8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생 전원은 2년간의 대학원 등록금 및 해외연구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2학년 여름방학 중에는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CMU)과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EI)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이석원 원장은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생들이 받게 될 특전 중 특별히 카네기멜론대학의 연수 내용과 그 의미에 방점을 찍는다.

“카네기멜론대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학입니다.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학생들은 5주간의 연수기간 동안 실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Software Architecture : 소프트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 교수가 연수에 동행해 학생들과 맞춤 스터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는 졸업한 학기 앞둔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자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성과 안정성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은 ‘디펜더블(Dependable) 소프트웨어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원으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디펜더블 소프트웨어란 어휘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이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의 불안정성은 곧 그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자동차나 항공기, 핵시설이나 금융시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불안정성은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펜더블 소프트웨어기술은 부가가치가 매우 큰 미래형 소프트웨어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아키텍트(Architect : 설계자)급 고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원 원장 역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그것의 의미에 주목한다.

“안정성이 검증되고 보장된 디펜더블 소프트웨어는 아주 심플한 소프트웨어도 그 중요성과 임팩트가 크기에 부가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양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에서 질적이고 만족도 위주의 접근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설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석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장

소프트웨어 융합학, Convergence Science

이석원 원장이 역설하는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변화 양상은 이른바 ‘소프트웨어 융합학’이다. 여러 기술과 학문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집중되어 융화되는 ‘Convergence Science(융합 과학)’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융합학은 어느 한 분야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여러 분야가 소통함으로써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학문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통신, 전기, 교통, 주거, 물류, 금융 등 모든 분야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더 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제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설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경영 중심의 사고력

근래 들어 소프트웨어는 안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는 물론, 더욱 세심한 인간의 편의를 향해 끊임없이 진화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 설계의 중심에 ‘사람’을 놓아야 하는 이유다. 이석원 원장은 소프트웨어공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창의적이며 감성적인 학문이라고 강조한다.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나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도구처럼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라”

고품질·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경영능력과 현장경험이다. 소프트웨어 역시 중국에는 사용자들이 소비해야 하는 상품이기에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며, 변화무쌍한 소프트웨어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험과 실력을 축적한 고급인력을 산학협력 교수로 영입했다. 또한, 학생들은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12개의 참여기업에서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급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디펜더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급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의 쾌속순항을 기대해 본다.

2013
New Year
Vol.4

A J O U U N I V . N E W S

수상 및 선정

교과부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



아주대학교가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 사업비의 5% 내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10월10일, 대학교육혁신원은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 성과 평

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총 5,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영-장우진 교수 논문, '인문사회 연구 대표 성과'에 포함

김도영(경영학과), 장우진(미디어학부) 교수의 논문이 각각 한국연구재단 선정 '최근 10년 인문사회 연구 대표성과'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우수 연구로 선정된 김도영 교수의 논문은 '위험 감수성에 대한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s in risk)'라는 제목으로 한국인들이 집단 구성원들에 동조하는 경향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강함을 보여준다. 장우진 교수의 논문은 '196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직접서술의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 한국 영화에 나타나는 직접 서술이 관객들의 관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내용이다.



김도영 교수



장우진 교수



특허청 선정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 기관으로 뽑혀

아주대학교가 특허청과 KOTRA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IP) 성과확산 포럼 2012'에서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1월15일과 1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 대학과 공공 연구소의 지식재산 사업화 성과를 알리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주대는 2009년 이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해 기술이전 사업화 체계를 확립했다. 이에 기술이전료 수입도 급증, 2011년 11억7,300만원의 기술이전료를 벌어들였다.

제1회 공학교육혁신 교과목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제1회 공학교육혁신 교과목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이 지난 9월19일 팔달관 공과대학 학장실에서 열렸다. 기초교육대학의 서정에 강사(과목명:영어2)가 대상을 받았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강경란 교수(과목명:자료구조)가 우수상을, 물리학과 송용진 교수(과목명:물리학 실험1)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입선 1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주 위대한 고전' 대회 시상식 열려

11월30일 오후, 아주대 율곡관에서 제1회 '아주 위대한 고전' 경연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 대회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사업)의 일환으로 고전을 접하고 체득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안재환 총장은 문학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국문과 고희미, 영문과 이세원 학생과 철학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국문과 강화리, 자유전공 최인규 학생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유인철 학생, KB국민은행 광고 공모전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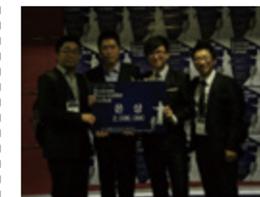


지난 10월19일,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유인철 학생(06학번)이 KB국민은행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인철 학생은 세종대 시각디자인학과 채수정 학생과 팀을 이뤄 국민은행 상품관련 광고(인쇄물)를 출품했다. 수상작의 제목은 '내 꿈을 저축하라'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광고(TV/인쇄), 디자인, 카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신강현 교수팀,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 선정

신강현(심리학과) 교수팀이 2012년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ocial Sciences Korea, SSK)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약 3억 2,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부터 SSK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난 8월29일 최종 43개의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신강현 교수 연구팀에는 김완석(심리학과) 교수, 김정일(심리학과) 교수가 함께 참여하며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김우성 학생 외 4명, 대학생 PT대회 은상



아주대학교 학생 4명으로 구성된 PnM팀이 '2012 전국 대학생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와 경북대학교, 산업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 10

월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70개 대학 총 240팀이 출전했다. 은상을 차지한 우리 학교 PnM팀은 김우성(전자과 04), 양재우(경영학부 09), 임장혁(수학과 06), 황준수(경영학부 08)로 구성됐다.

최수영 교수, 청암과학펠로 선정

최수영(수학과) 교수가 포스코청암재단의 청암과학펠로십에 최종 선정됐다. 청암과학펠로십은 포스코가 설립한 포스코청암재단이 기초과학 분야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2009년 만든 프로그램이다. 최 교수는 '토릭다양체의 위상적 분류'라는 연구주제로 청암과학펠로십에 응모, 10월12일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2년간 7,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장위(章威). 고려시대에 거란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회복한 서희 장군의 시호다. 나라를 지키는 장군의 업적을 기리며, 그동안 군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온 우리 대학 '장위 국방연구소'가 국방부 산하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민간대학 연구소로는 최초로 국방부로부터 국방 연구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쾌거다. 이정태 소장(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과 함께 장위국방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비전을 들여다본다. 글 이혜인(편집실)



Jangwe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아주, 장위국방연구소 첨단 국방기술을 선도한다

과거 전쟁은 보유하고 있는 무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중심전(NCW)으로 흐르고 있는 현대전에서는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힘이다. 지난 11월29일, 우리 대학 종합관에서 '국방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전문기술지원기관' 개소식이 열렸다. 안재환 아주대 총장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유철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등 국방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장위국방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모은 자리였다.



이정태 장위국방연구소장



국방부는 지난 5월 '국방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 공고를 내고, 제안서 평가와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아주대 장위국방연구소를 지원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 2008년 설립(초대 소장 : 김동윤 교수) 이래 국방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상호운용성 관련 국방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결과다. 이정태 소장은 이번 국방부 선정 의미에 대해 독립적인 민간 국방연구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보통신 분야가 군 전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군 관련 첨단기술 연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대전의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속에서는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무기체계나 부대 간에 서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방 분야에서는 여전히 기술 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급변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IT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군 단독으로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군·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연구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장위국방연구소는 군·산·학·연의 협력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군과의 연구 협력 및 신뢰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2003년 학·군 교류 협약 체결(육군, 공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등) 이후 C4I&S/W 연구센터, 국방기술네트워크 연구센터(AJOU-TNRC, 지식경제부 지정 IT연구센터)를 차례로 설립했다. 연구소의 또 다른 강점

은 전문 인력이다. 현재 장위국방연구소의 연구 인력은 정보통신대학 교수진 30여 명, 겸임/객원 교수진 20여 명, 전문연구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장성 및 영관급 군 출신 전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타 대학과 달리 이렇게 우수한 군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정보통신대학원, 2007년 NCW공학과(석·박사과정) 설립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 온 덕분이다.

“몇 년 전부터 여러 대학들이 국방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대학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방기술 분야 교육 및 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군 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군 네트워크 분야의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위국방연구소가 산·학·연을 리드할 수 있는 국방기술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장위국방연구소는 앞으로 국방정보기술 표준 제정, 국방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전문가 교육, 국방 상호운용성 이슈 해결(콜센터 개념) 등의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내 군·산·학·연 협력 연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들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정태 소장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잘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군과 산·학·연의 협력을 주도하는 연구소로서 국방 정보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연구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바이오넷 대표 강동주(전자공학 81) 동문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라



바이오넷

바이오넷은 심전계, 폐기능측정기, 태아감시장치, 환자감시장치 등을 주로 생산하는 생체신호감지 장비 전문기업이다. 직원 수는 60여 명(MGB는 독일 40명, 서울 20명).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이 연구 인력이며 국내 최다 인체측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바이오넷은 본격적인 원격진료 시장 진출을 통해 u-헬스(ubiquitous-health)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이제 한류는 연예와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주)바이오넷 대표 강동주 동문은 생체신호감지 장비 분야에서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 한류 바람을 일으킨 주역이다. 최근 바이오넷의 자회사인 MGB(의료용 내시경 전문기업)업무를 챙기기 위해 독일 출장을 다녀온 강동주 동문을 만나, 세계를 누빈 그의 도전기를 들어 보았다. 글 이혜인(편집실)

서울 구로디지털밸리에 있는 '바이오넷'은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바이오넷을 이끌고 있는 강동주 동문은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를 거쳐, 한양대 대학원에서 의용생체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생체의료공학 전문가다.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메디슨'에서 4년간 초음파연구원으로 일했던 그는 사내 인큐베이팅 분야였던 생체신호 사업부장을 맡으며 생체신호기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때부터 제 관심사는 언제나 '기술'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부품을 사다가 FM 라디오나 앰프를 조립하는 것이 취미였죠. 군 제대 후에는 당시 워크맨 임가공 분야의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 사업을 도왔어요. 1년 8개월 동안 전적으로 일에 매달렸는데, 가산의 반을 탕진한 채 공장은 망하고 말았죠. '이왕 맛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일찍이 산업 현장의 밑바닥을 체험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학 후,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온 그는 학업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기술력의 한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설계 능력을 쌓기 위해 전자공학과 전산공학을 복수전공하고 틈틈이 경영학 수업도 들었다. 한편, 대학원 석사 과정은 강동주 동문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김영길 교수님의 지도 아래 현재 사업의 근간이 되는 의료공학을 만난 것. 통신과 LCD에 이어 의료 분야에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이 주목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세계로

'메디슨'에 입사해 아이디어맨으로 활약하던 강동주 동문은 1997년 아주대 출신의 동문 연구원들을 주축으로 환자 감시장치 전문기업 '바이오시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시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 3년 만에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1999년 강동주 동문은 '바이오넷'을 창업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한 것. 현재 '바이오넷'은 미국과 독일에 법인을 두고, 자체 브랜드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 120여 개 대리점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성장했다. 2012년 매출액은 380억 원, 전체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이뤄진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온정주의와 같은 한국적 정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타문화에 일방적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상대에게 리드 당하기 마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상식에 준하는 행위, 다시 말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외국어 소통 능력과 국제 문화에 대한 학습은 기본이고요”

해외 의료기기시장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그야말로 무결점, 무사고 제품만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의료기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특징 때문에 FDA(미국 식품의약품)를 비롯한 각 나라의 인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강동주 동문은 “브라질에선 2년 이상, 러시아에서도 1년이 걸렸다”며 시장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시간과 인내, 막대한 투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집념과 승부 근성은 '바이오넷'을 생체신호 감지 장비 분야의 선두 주자로 끌어올리는 성장 동력이 되었다.

주도적인 삶이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기업을 시작한지 13년째. 강동주 동문은 무엇보다 바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존재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강동주 동문은 CEO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노트>, <프로페셔널의 조건> 등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저서들을 꼭 읽어 보길 권한다. 회사 생활을 미리 이해하고 자신의 비전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또한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은 매니지먼트를 한층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라고 덧붙였다.

“누구나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자신의 인생과 일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베껴오거나 훔쳐러 하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남보다 먼저 창조해내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기회가 생길 겁니다”

학부 때부터 '아주대 간판을 걸고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강동주 동문은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선 후배간의 든든한 협력을 당부한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훌륭한 기업가들을 배출하면서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성장했듯, 아주대도 기업가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강동주 동문은 “의료 사업은 비교적 경기를 타지 않는 유망한 분야다. 자질 있는 후배들이 우리 회사에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모교 후배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다.



석호현(공공정책대학원) 동문

‘후배사랑’에 앞장 서는

“아주대학교는 제게 ‘엄마’ 같은 곳입니다. 들어서면 편안하고 선후배를 만나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지난 2004년 석사 학위를 받은 석호현 동문이 1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지난 11월19일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우선 기부했다.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장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후배사랑’을 앞장서 실천해온 석호현 동문을 그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유치원에서 만나봤다. 글 이슬(홍보실)



1억원이라는 큰돈을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선뜻 내놓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묻자 석 동문은 젊은 이들에 대한 애정이 담백 묻어나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동안 여러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주대학교 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았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조금 규모 있게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는 특히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고생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석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마음장학회 역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단체다. 한마음장학회는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이 2010년 만든 장학회다.

석 동문은 “한마음장학회는 학생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정책대학원 선후배들에게 소속감과 긍지를 심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한마음장학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조금씩 기부하

려는 동문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회장을 맡은 데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올 때 뿌듯하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베푸는 기부 문화 확산의 전도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석 동문은 지난 1992년부터 수원에서 유치원을 운영해온 유아 교육 분야 전문가다. 현재는 자신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며 법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일하고 있는 것. 지나치게 낮은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립 유치원 원아도 국가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게끔 하는 일 등을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으로서 그가 함께 해왔고, 또 앞으로 이어갈 일이다.

그렇다면 20여년을 현장에서 일해 온 교육 전문가로서 보는 요즘 대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을까? 석 동문은 ‘당당히 어깨를 펴고 세상을 넓게 보라’고 전한다. “요즘 대학생들을 볼 때 마다 느끼는 점이 너무 의기소침하다는 겁니다. ‘그릇’이 커야 그만큼 담아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나치게 주눅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좁지 않아요. 눈을 크게 뜨고 자신감을 가지면 내가 가야할 길, 나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과 적극성을 키워주세요”

석호현 동문은 2013년 3월부터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할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산지식을 학생들 앞에 펼쳐 놓게 되는 것.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긴장감이 큰 만큼 설렘도 크다. 그는 “3월부터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쪽 강의를 맡게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엄마’ 같이 포근한 아주대학교에서 석호현 교수가 만들어낼 학생들과의 살아있는 수업, 3월 따뜻한 봄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다.



2013
New Year
Vol.4

A J O U U N I V . N E W S

그 외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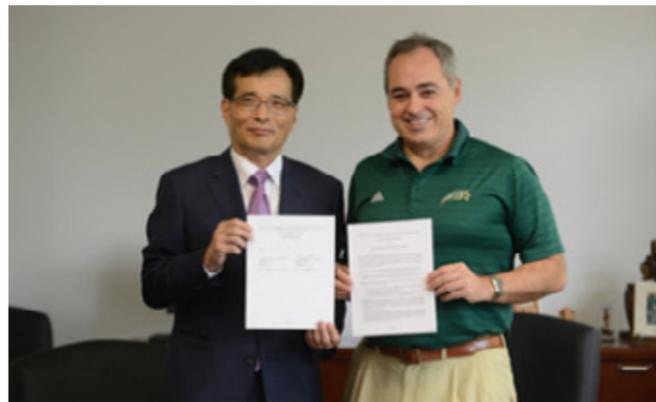


중국 산둥사범대학과 복수학위 협정 체결

아주대학교가 지난 10월25일, 중국에서 산둥사범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고 산둥성 내에 위치한 지난대학, 청도대학 등과도 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다. 안 총장은 협약식에서 “아주대학교는 이미 산둥대, 중국해양대, 산둥이공대 등 산둥성 지역의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벌이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적팽창 뿐만 아니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위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신입생 모집, 6.5대1 경쟁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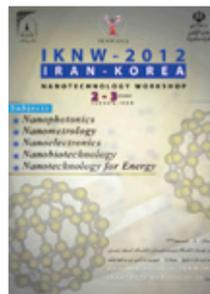
2013학년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6.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15일,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50명 모집에 32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들은 변호사 시험 100% 합격을 기록한 데 이어 취업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지난 1월 졸업한 첫 회 졸업생 41명 가운데 39명의 졸업생이 취업에 성공, 95.1%(9월 말 기준)의 취업률을 기록한 것. 앞서 1기 졸업생들은 올해 1월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과 MOU, 연구교육 협력기로

안재환 총장은 지난 9월7일, 조지메이슨대학을 방문해 이 대학 엔젤 카브레라(Angel Cabrera) 총장과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두 대학이 향후 교육과 연구에 적극 협력한다는 포괄적 내용이 담겼다. 양 교간에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아주대는 장단기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란과학기술대학과 MOU, 기념 워크숍 열려



아주대학교와 이란과학기술대학(Ir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UST)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학교는 앞으로 공동 연구와 대학원생 및 교직원 교류, 국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에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MOU 체결을 기념해 지난 10월2일과 3일, 이란 테헤란에서 나노기술 분야 워크숍을 열고 연구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워크숍은 ‘에너지 변환에 있어서의 나노 기술’, ‘나노광자공학과 나노전자공학’, ‘나노바이오기술 및 나노의학’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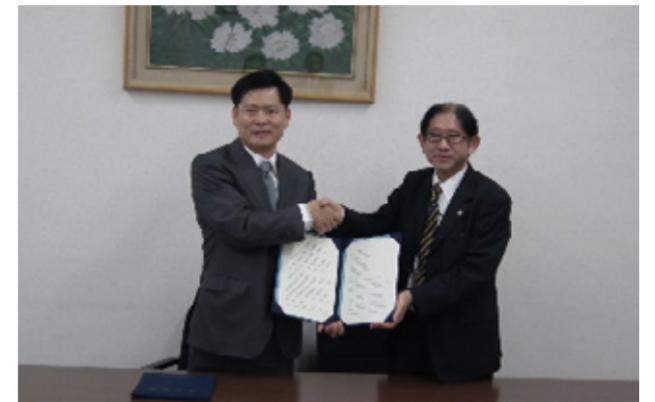


국제대학원-한국YMCA연맹, 업무 협약 체결

지난 11월21일, 아주대 국제대학원과 한국 YMCA연맹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YMCA 직원 초청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대학원은 향후 YMCA 직원을 대상으로 YMCA의 자체 교육과정과 연계해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턴십 운영지원과 교육사업 공동연구 및 개발 지원 등의 내용도 협약서에 포함됐다.

약대 정이숙 교수, ‘약의 날’ 기념식에서 식약청장 표창 받아

약학대학 정이숙 교수가 ‘제26회 약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약의 날’ 행사는 지난 10월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은 평소 약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이숙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심장 및 뇌혈관계 병태생리 기전 연구와 치료법 개발이다. 정 교수는 아주대 약학대학 병태생리학 교실을 이끌고 있다.



약대, 연이은 MOU 체결, 연구교육 협력기로

약학대학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일본 구마모토대학, 수원시 약사회와 잇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 지난 9월27일에 체결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의 MOU에는 두 기관이 앞으로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개발 및 연구 기획, 연구 및 교육 시설의 공유 등에 있어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월22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구마모토대학에서 체결한 이 대학과의 MOU에는 교수진 및 연구진 교류와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교육 과정이나 e-러닝 등을 함께 개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수원시약사회와는 11월1일 MOU에 서명하고 교육 및 학술 연구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3
New Year
Vol.4

A J O U N I V . N E W S

의료원 소식



의료원, 개원 18주년 맞아 기념식 가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개원 18주년을 맞아 9월12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소의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기영 의과대학장, 박지원 간호대학장, 유희석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 18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의료원 발전에 공헌한 교직원에게 근속상 및 공로상을 수여했다. 소의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웰빙센터 개소를 준비하며, 역시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남은 2012년 후반기에도 우리의 경쟁력을 통해 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성장하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박명철, 장재연 교수 등 정부포상 잇따라

의과대학 박명철 교수와 장재연 교수가 연달아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는 기후변화건강포럼을 창립해 폭염을 비롯한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감염병 감시체계와 대응전략을 제시해 감염병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성형외과학교실 박명철 교수는 동료 의료인들과 함께 15년째 베트남과 라오스의 선천성 안면기형 어린이를 무료로 수술해 주어진 3월까지 1,029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입은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해외봉사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웰빙센터 준공식 개최

9월18일, 웰빙센터 준공식이 아주대학교 안재환 총장,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영현 상임이사, 아주대학교병원 홍보대사인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웰빙센터는 연면적 26,012㎡에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로, 2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8월 6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개시했다. 웰빙센터는 기존에 병원이 가지고 있던 질병치료 기능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의 기능을 접목한 신개념의 힐링(Healing) 공간을 지향하고 있어, 다른 병원에서 볼 수 없는 암 환자 쉼터(아주푸른공간)와 아주스포츠의학센터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날 소의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웰빙센터 준공으로 고객에게 좀 더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이를 계기로 아주대병원 진료공간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진료과에서 질환 중심으로 바뀌는 등 발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웰빙센터 준공의 의미에 대해 “아주대의료원의 역량 확대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12월1일부로 센터 진료 시스템 가동해

아주대학교병원이 질병 중심, 환자 중심의 센터 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새로운 센터 진료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은 간센터, 위암센터, 대장암센터, 폐센터, 유방암센터, 부인암센터 등 6개 암센터와 심혈관센터다. 이외에도 병원은 소화기병센터와 내분비센터 등 장기별 운영센터를 두고, 질병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의들의 유기적인 협진이 가능하도록 진료공간을 리노베이션했다.



경기지역암센터 개소식 개최

아주대병원은 10월24일 별관 대강당에서 경기지역암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병원은 2011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지역암센터로 지정받았으며, 1여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경기도청 김용연 보건복지국장과 경기도의회 이삼순 부의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경기지역암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경기지역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 받아

아주대학교병원이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을 받았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뇌졸중 환자를 입원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뇌졸중 전문치료실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뇌졸중 전문치료실로 인증하고 있다. 병원은 2007년 3월부터 본관 9층에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뇌졸중 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대학, 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간호대학은 12월3일, 종합관 대강당에서 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이 전문 간호인으로서 일생동안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다. 올해 선서식에서는 78명의 간호대학 학생이 사랑과 봉사, 헌신하는 전문 간호인이 될 것을 약속하는 촛불 의식을 거행했다.

병원, 위장관협착클리닉 개설

아주대학교병원은 최근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위장관 협착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와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장관협착클리닉'을 개설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는 위장관 협착 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과 좋은 치료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위장관 협착 치료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하는 등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과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장관협착클리닉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최적의 연구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문 진료는 소화기내과 김진홍, 이기명, 황재철, 임선교 교수가 담당한다.

아주사랑

아주대학교는 무한경쟁을 기회 삼아 '더욱 앞서가는 대학',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 9~11월, 많은 분들이 아주대학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주대를 사랑하는 진심어린 후원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1	2	3
4	5	6

4. 석호현 동문 발전기금 2,000만원 기부

석호현(공공정책대학원) 동문이 아주대학교에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안재환 총장은 석 동문에게 11월19일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 석 동문은 총 1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했으며, 이 가운데 2,000만원을 우선 기부했다.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 장학회 회장이기도 한 석 동문은 지난 6월, 장학회원들과 함께 모은 2,000만원을 장학회 대표로 전달하기도 했다. 안재환 총장은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펼치는 석호현 동문에게 학교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5. KT&G 수원지점, 장학금 500만원 기탁

KT&G 수원지점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아주대학교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기부는 KT&G 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KT&G 전직원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적립해 상상펀드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발전본부는 지난 11월13일, 김영구 KT&G 수원지점 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영구 KT&G 수원지점장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아주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한마음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지난 9월19일 오후, 아주대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한마음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한마음 장학생 21명과 안재환 총장, 석호현 한마음 장학회장, 각 처장 및 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과 학부 학생 6명,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 2명을 비롯한 장학생들에게는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안재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선배들의 값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야 할 것"이라며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마음장학회는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부생들을 돕기 위해 만든 장학회로 2010년 출범했다.

2. 안재환 총장, 제주지역 동문들과 만나

안재환 총장이 지난 9월24일 저녁, 제주도에서 아주대학교 제주 동문회 임원진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안 총장의 제주도 출장 중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제주 지역 동문회 임원 7명이 참석했다. 안 총장은 "동문들이 서로 활발히 교류하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교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총장과 동문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강희석 제주 동문회장(전자 84)은 "총장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문 모임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제주 동문회를 활성화시켜 빠른 시일 내 모교에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3. 10만달러 장학금 쾌척 송진국 동문에 감사패 전달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기업인으로 성공을 일군 아주대 1회 졸업생 송진국 동문(화학공학과 73)이 모교에 10만달러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안재환 총장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난 10월30일 송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진국 동문은 미국 텍사스주 플라워마운드에 기반을 둔 화장품 회사 나테라 인터내셔널(Naterra International)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학교는 '송진국장학기금(가칭)'을 신설해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 동문은 "성공하면 모교에 기부금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6. 82학번,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의 날 행사

아주대학교 82학번들이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캠퍼스 투어와 축하공연, 은사님과 만남 등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는 82학번 동문 180여명이 참석했다. 11월3일 오후 4시부터 체육관에서 개최된 모교방문 행사는 82학번 모교 방문행사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총동문회와 대학발전본부가 후원했다. 안재환 총장과 강태현 총동문회장, 각 처장과 교직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식전행사로 포토존 촬영과 캠퍼스 투어, 학교 응원단 '센트'의 공연이 열렸고, 본식은 총장 축사와 은사님 선물 증정식, 오케스트라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시빅 오케스트라와 팝페라 가수 강진주, 하나린, 명장 장효선 씨가 공연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82학번 동문들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하고 1억원 후원을 약정했다.

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부자(2012. 9~11)

교직원 교수

김광윤 / 권건보 / 김민구 / 김병관 / 김서용 / 김영래 / 박만규 / 백윤기 / 위영철 / 유재석 / 이교범 / 이창준 / 이형천 / 임한조 / 임한조 / 조재형 / 최원

교직원 직원

김미숙 / 박승진 / 박일분 / 신형섭 / 안영찬 / 양광모 / 왕재선 / 정영근/ 제갈훈 / 진성호

의료원 직원

권중희 / 권춘련 / 김윤기 / 아주대의료원 축구회 / 안대근 / 이지현 / 정명숙 / 정서진 / 정해근 / 최선정 / 황원선

동문

82학번 동기회 / 강병욱 / 김동길 / 강기룡 / 강병혁 / 강승현 / 강태규 / 강태현 / 강현우 / 강홍민 / 고강현 / 고기황 / 고민수 / 고민진 / 공만식 / 권오희 / 권용일 / 김관균 / 김국희 / 김규남 / 김기현 / 김동엽 / 김명덕 / 김명범 / 김명식 / 김무림 / 김무현 / 김민수 / 김민우 / 김병영 / 김보경 / 김봉춘 / 김상룡 / 김상태 / 김성조 / 김성호 / 김숙영 / 김술찬 / 김승범 / 김승열 / 김승주 / 김시환(이옥자) / 김영아 / 김용덕 / 김용석 / 김용찬 / 김용태 / 김원상 / 김인규 / 김재환 / 김중대 / 김중권 / 김진국 / 김진성 / 김진수 / 김진욱 / 김진호 / 김천훈 / 김태환 / 김한욱 / 김형호 / 김혜진 / 나창용 / 나창용 / 나충주 / 도미진 / 류승우 / 문도준 / 문상윤 / 박상희 / 박성우 / 박성진 / 박영중 / 박유성 / 박인자 / 박재영 / 박찬복 / 서현진 / 석용수 / 석호현 / 선준규 / 성지선 / 손영복 / 송진국(BEAUTY MANUFACTURING SOLUTIONS CORP) / 신동욱 / 신동혁 / 신윤철 / 신현국 / (사)아주대학교 동문장학회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총동문회 / 양승철 / 엄상진 / 엄성현 / 오말지 / 오신규 / 유환필 / 유희찬 / 윤영민 / 윤정훈 / 윤진수 / 윤형진 / 이강구 / 이강현 / 이광필 / 이군상 / 이기우 / 이동현 / 이문환 / 이민상 / 이상권 / 이상열 / 이상엽 / 이상우 / 이수철 / 이영민 / 이영철 / 이원택 / 이정준 / 이정택 / 이종연 / 이종연 / 이종현 / 이주승 / 이창수 / 이혁준 / 이효길 / 이희련 / 임동하 / 임영균 / 장은혜 / 정동민 / 정상호 / 정성운 / 정인권 / 정재원 / 정재훈 / 정현우 / 조규택 / 조태야 / 조홍룡 / 지강만 / 채용구 / 최경덕 / 최근경 / 최중욱 / 하중수 / 한영희 / 한정섭 / 한혜수 / 한효식 / 홍성길 / 홍재광 / 환우회 / 황성진

일반

가치있는밥상 / (재)경동장학재단 / 구매포유닷컴 / (재)구원장학재단 / (주)그린정보통신 / 광개토 / 김균현 / (주)대신 / 돈황갈비 / 드림디포수원본점 / 롯데리아 수원메가박스점 / 명동칼국수 샵샤브 / 명창당 / 무교동일품낙지 / (주)비투비씨앤아이 / 비티에스테크놀로지스(주) / (주)벤티코리아 / (주)선진금융 / 수누리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아정회 / 아주대 상조회 / (주)우주일렉트로닉스 / 유니온플라워 / 이영이 / (주)일진오토리스 / 제일씨게백반 / 지원테크 / 춘하추동 / 케이에이치코퍼레이션 / 태화장 / 퓨처소프트주식회사 / 한국비투아컨설팅주식회사 / 한우람 명품관(주) / 허수아비 / 현경 / 홀스टे드 아주대점 / KT&G 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학부모

김남숙 / 박춘자 / 방성주 / 안종길 / 전철구 / 정산홍 / 정영호

1-1-1 캠페인 기부자(2012. 9~11)

교직원 교수

김동근 / 고근하 / 곽노준 / 곽명숙 / 권순정 / 권오필 / 권익진 / 김경래 / 김도영 / 김동완 / 김문석 / 김민구 / 김상열 / 김수용 / 김순태 / 김승주 / 김영길 / 김영진 / 김유권 / 김재현 / 김현욱 / 김형수 / 김형택 / 김혜선 / 김호섭 / 김홍식 / 노민수 / 문승재 / 문은표 / 문창규 / 문혜원 / 민철기 / 박기동 / 박만규 / 박범 / 박성진 / 박승규 / 박영동 / 박용배 / 박용환 / 박재연 / 박정식 / 박태원 / 백윤기 / 범진환 / 서문호 / 서원희 / 서형탁 / 손정훈 / 손태식 / 송용진 / 송현호 / 안영환 / 엄동일 / 오수기 / 오영태 / 용세중 / 유재석 / 유태현 / 윤원식 / 윤현철 / 이교범 / 이기근 / 이병욱 / 이분열 / 이상국 / 이상민 / 이상신 / 이상엽 / 이숙향 / 이자성 / 이재의 / 이정원 / 이준섭 / 이지연 / 이채우 / 이철기 / 이평천 / 이형천 / 임석철 / 임재성 / 임재익 / 장중순 / 장혜영 / 전영목 / 전용호 / 정경훈 / 정기현 / 정이숙 / 정인하 / 정태선 / 조광국 / 조광순 / 조두진 / 조영호 / 조재형 / 조중열 / 조하연 / 차영선 / 최경희 / 최기련 / 최상돈 / 최수영 / 최윤희 / 최태영 / 최홍근 / 하영화 / 한호 / 함효준 / 홍석교 / 홍성기

교직원 직원

강한현 / 고명식 / 고병수 / 고순재 / 구자영 / 권용금 / 권주연 / 김경숙 / 김권기 / 김규남 / 김근 / 김근태 / 김기문 / 김기현 / 김동석 / 김동현 / 김성준 / 김수영 / 김승권 / 김시천 / 김영국 / 김영기 / 김은희 / 김인애 / 김재은 / 김정효 / 김중현 / 김지혜A / 김형근 / 김형식 / 나기석 / 나명순 / 남현우 / 노동현 / 노학래 / 문병철 / 문영준 / 박민경 / 박봉기 / 박성숙 / 박일분 / 박재홍 / 박중채 / 박철균 / 박한나 / 배영환 / 송은주 / 송홍배 / 신경철 / 신정수 / 신정철 / 신형섭 / 안선미 / 안순일 / 안영찬 / 안재환 / 양광모 / 양성모 / 오상탁 / 우용재 / 위정식 / 유경호 / 유시대 / 육현민 / 윤영화 / 윤재승 / 윤진 / 윤혜정 / 이강준 / 이기홍 / 이도섭 / 이동렬 / 이명호 / 이명희 / 이미영 / 이미자 / 이병근 / 이석원 / 이선형 / 이성아 / 이수영 / 이영철 / 이영현 / 이은경 / 이은규 / 이인풍 / 이태재 / 이현규 / 이홍수 / 인정숙 / 임홍식 / 장세덕 / 장영수 / 정기훈 / 정세훈 / 정영채 / 정정문 / 정홍락 / 조경숙 / 조재현 / 조환 / 진명주 / 진성호 / 천순자 / 최성혜 / 최영호 / 최정영 / 최진구 / 최창기 / 최춘석 / 최희자 / 허택만 / 홍영수 / 황원복

의료원 교수

김병곤 / 김운순 / 김재근 / 김홍수 / 나은우 / 민병현 / 박기현 / 박지원 / 박해심 / 백은주 / 서창희 / 소의영 / 송미숙 / 신승수 / 신준한 / 신호준 / 안미선 / 오영택 / 유문숙 / 유희석 / 이경중 / 이수진 / 이종찬 / 임기영 / 정연훈 / 정윤석 / 조기홍 / 조혜성 / 한삼욱

의료원 직원

고제상 / 권오식 / 권중희 / 권춘련 / 기은정 / 김승권 / 김연정 / 김영주 / 김윤기 / 김인애 / 김지양 / 김현실 / 김호빈 / 노현욱 / 박미미 / 박범식 / 박상신 / 박상희 / 박수경 / 박수용 / 박연욱 / 박인규 / 박정웅 / 배명환 / 백선희 / 백설경 / 소진식 / 손순이 / 송기정 / 송석례 / 송수곤 / 신중현 / 안대근 / 안성화 / 안현남 / 엄애현 / 우효정 / 유동문 / 윤학근 / 이미영 / 이영욱 / 이재권 / 이지현 / 이지현 / 이혜경 / 이효철 / 임문채 / 임인경 / 임재수 / 장봉희 / 정서진 / 정옥희 / 정완식 / 정해근 / 조현주 / 최규선 / 최선정 / 최원신 / 한영민 / 함정화 / 함형미 / 홍권희 / 황경애 / 황원선

동문

갈원모 / 감정규 / 강경원 / 강경택 / 강기현 / 강두경 / 강명희 / 강병돈 / 강석배 / 강석환 / 강신구 / 강신호 / 강윤환 / 강진모 / 강태원 / 강태현 / 강형호 / 강호출 / 강훈 / 강희석 / 강희진 / 경정현 / 경태영 / 고강현 / 고간웅 / 고대근 / 고동식 / 고병각 / 고상현 / 고성민 / 고인웅 / 고재만 / 고중섭 / 곽옥경 / 곽정신 / 곽창식 / 구병춘 / 구유희 / 구자현 / 구혜진 / 권광우 / 권기중 / 권기형 / 권대진 / 권범윤 / 권영민 / 권오중 / 권우택 / 권이수 / 권익주 / 권재일 / 권주빈 / 권태인 / 권혁동 / 권혁면 / 권혁중 / 금동순 / 김경현 / 김경희 / 김구용 / 김국수 / 김규봉 / 김규진 / 김근배 / 김금균 / 김기섭 / 김기준 / 김기창 / 김기태 / 김기호 / 김길성 / 김남기 / 김남포 / 김대용 / 김대용 / 김대현 / 김대홍 / 김동규 / 김동백 / 김동오 / 김동욱 / 김동욱 / 김두용 / 김두호 / 김명수 / 김명숙 / 김명식 / 김명호 / 김문관 / 김미숙 / 김미자 / 김민 / 김민웅 / 김병석 / 김범수 / 김병기 / 김병섭 / 김병영 / 김병주 / 김병준 / 김보경 / 김봉렬 / 김봉준 / 김봉춘 / 김삼영 / 김상권 / 김상동 / 김상선 / 김석훈 / 김선구 / 김상태 / 김성기 / 김성만 / 김성우 / 김성원 / 김성조 / 김성현 / 김성희 / 김세득 / 김세영 / 김세철 / 김송암 / 김수기 / 김수진 / 김수철 / 김수현 / 김승규 / 김승만 / 김승복 / 김승진 / 김승희 / 김시범 / 김시원 / 김양현 / 김연석 / 김연수 / 김연철 / 김영무 / 김영서 / 김영소 / 김영주 / 김영중 / 김영중 / 김영찬 / 김영천 / 김영환 / 김옥진 / 김요용 / 김용갑 / 김용갑 / 김용걸 / 김용경 / 김용구 / 김용국 / 김용기 / 김용태 / 김용호 / 김우원 / 김육중 / 김용기 / 김원식 / 김유복 / 김유신 / 김윤정 / 김윤태 / 김은실 / 김은호 / 김익환

1-1-1 캠페인 기부자(2012. 9~11)

김일수 / 김재정 / 김재호 / 김재호 / 김재환 / 김정권 / 김정한 / 김제경 / 김종건 / 김종길 / 김종남 / 김종범 / 김중선 / 김중수 / 김중오 / 김중완 / 김중준 / 김중철 / 김중현 / 김주봉
 김주석 / 김주태 / 김주환 / 김준용 / 김중구 / 김지관 / 김지호 / 김지흥 / 김진명 / 김진수 / 김진안 / 김진우 / 김진원 / 김진원 / 김진호 / 김진호 / 김찬우 / 김창규 / 김창균 / 김창욱 / 김창조
 김창주 / 김창진 / 김창희 / 김철수 / 김철호 / 김태경 / 김태관 / 김태식 / 김태영 / 김태욱 / 김태일 / 김태출 / 김태훈 / 김판수 / 김필기 / 김학구 / 김학철 / 김한복 / 김한규 / 김현 / 김현기
 김현섭 / 김현식 / 김형식 / 김형우 / 김홍석 / 김환욱 / 김희창 / 나중호 / 나창운 / 나창일 / 나태영 / 남광희 / 남궁규태 / 남상신 / 남승우 / 노천규 / 노희정 / 도정열 / 류상현 / 류원대 / 류중규
 류지상 / 류홍천 / 마명섭 / 명재호 / 목익수 / 문경식 / 문관수 / 문명식 / 문양현 / 문연숙 / 문영춘 / 문유건 / 문재경 / 문재호 / 문희봉 / 민병갑 / 민병윤 / 민정기 / 민중식 / 민준영 / 박강서
 박건수 / 박건용 / 박경수 / 박경준 / 박경현 / 박광호 / 박권수 / 박근우 / 박기원 / 박기준 / 박낙원 / 박대원 / 박동애 / 박동애 / 박동진 / 박맹상 / 박문산 / 박문순 / 박문찬 / 박미희 / 박병우
 박병윤 / 박병창 / 박상오 / 박상욱 / 박성준 / 박성환 / 박세규 / 박수진 / 박수진 / 박수택 / 박순식 / 박순웅 / 박시운 / 박안홍 / 박연희 / 박영동 / 박영복 / 박영석 / 박영수 / 박용석 / 박우경
 박원희 / 박원희 / 박유성 / 박인기 / 박재길 / 박정훈 / 박종경 / 박종극 / 박종기 / 박종석 / 박종용 / 박종원 / 박종윤 / 박종춘 / 박주연 / 박주완 / 박찬웅 / 박찬호 / 박창동 / 박철 / 박총림
 박태동 / 박태용 / 박학범 / 박혁 / 박호림 / 박홍웅 / 박환창 / 박호순 / 박희진 / 박희태 / 반영무 / 반철희 / 방경원 / 방병천 / 방재만 / 배성준 / 배희원 / 백성우 / 백승천 / 백차현 / 변경수
 변동진 / 변승환 / 변진욱 / 변태환 / 봉래중 / 부춘섭 / 서기준 / 서명원 / 서미하 / 서보근 / 서봉천 / 서상원 / 서성택 / 서수한 / 서영덕 / 서정현 / 서희덕 / 석광열 / 선호득 / 손덕기 / 손두현
 손석상 / 손순환 / 손응중 / 손지영 / 송경수 / 송근섭 / 송기상 / 송기호 / 송명동 / 송병섭 / 송석희 / 송성용 / 송승용 / 송원준 / 송재규 / 송중식 / 송호영 / 신경우 / 신동주 / 신동철 / 신동혁
 신동희 / 신두철 / 신명호 / 신병우 / 신상운 / 신상진 / 신성철 / 신수항 / 신영철 / 신용강 / 신응식 / 신의수 / 신재수 / 신재욱 / 신정섭 / 신정진 / 신준하 / 신준호 / 신창호 / 신춘섭 / 신태창
 신학순 / 신학순 / 신학순 / 신현주 / 신호연 / 심광용 / 심우성 / 심우영 / 심용섭 / 심인석 / 심정철 / 안기홍 / 안병식 / 안병열 / 안병철 / 안상수 / 안선호 / 안승숙 / 안예환 / 안재성 / 안재영
 안창영 / 안창준 / 안철순 / 안치규 / 안태훈 / 안호영 / 양광하 / 양국현 / 양모모 / 양미령 / 양병용 / 양성식 / 양승권 / 양승렬 / 양시영 / 양영재 / 양인식 / 양재현 / 양호진 / 양희창 / 양희성
 양희찬 / 어승규 / 어윤하 / 엄경이 / 엄민희 / 엄재득 / 엄정완 / 엄태문 / 엄성현 / 엄우영 / 오경윤 / 오귀석 / 오귀훈 / 오상경 / 오성원 / 오세태 / 오순아 / 오영권 / 오재영 / 오정락 / 오주영
 오준서 / 오창준 / 오태승 / 오택원 / 오현숙 / 오현우 / 용은희 / 우병주 / 우상혁 / 우신석 / 우창완 / 원운희 / 원준남 / 원주경 / 원치호 / 유갑진 / 유광열 / 유권중 / 유기상 / 유명호 / 유병대
 유상원 / 유성렬 / 유승선 / 유용수 / 유용식 / 유인상 / 유재권 / 유철형 / 유창상 / 유태근 / 유한석 / 유현준 / 유호상 / 유기원 / 윤도원 / 윤명범 / 윤석희 / 윤승원 / 윤영주 / 윤인수 / 윤중엽
 윤중찬 / 윤중근 / 윤춘기 / 윤태성 / 윤환 / 은유진 / 이강기 / 이강연 / 이강현 / 이근화 / 이경섭 / 이경재 / 이경중 / 이경현 / 이계주 / 이광노 / 이광용 / 이광중 / 이광호 / 이규철 / 이근석
 이금숙 / 이기근 / 이기중 / 이대범 / 이동기 / 이동원 / 이동원 / 이동호 / 이만성 / 이명운 / 이문근 / 이미경 / 이민경 / 이민우 / 이민호 / 이민호 / 이병구 / 이병기 / 이병선 / 이병조 / 이병호 / 이상
 이상권 / 이상성 / 이상엽 / 이상원 / 이상훈 / 이석현 / 이성근 / 이성식 / 이성식 / 이성식 / 이성운 / 이성용 / 이송호 / 이수원 / 이순태 / 이순태 / 이순택 / 이승근 / 이승제 / 이승현 / 이승현
 이연강 / 이연희 / 이영구 / 이영국 / 이영범 / 이영석 / 이영일 / 이영호 / 이왕희 / 이용로 / 이용복 / 이용수 / 이용욱 / 이윤운 / 이윤재 / 이윤훈 / 이우암 / 이윤갑 / 이운호 / 이윤중 / 이은성
 이은형 / 이응정 / 이응표 / 이인규 / 이인수 / 이인호 / 이일주 / 이재길 / 이재성 / 이재진 / 이재평 / 이정돈 / 이정섭 / 이정인 / 이정재 / 이정준 / 이정호 / 이정훈 / 이종연 / 이종용 / 이종원
 이종용 / 이종주 / 이종태 / 이종현 / 이종훈 / 이주환 / 이준영 / 이준은 / 이준호 / 이지복 / 이지상 / 이지원 / 이진석 / 이진선 / 이창수 / 이창우 / 이창훈 / 이창균 / 이창식 / 이치인 / 이태희
 이하영 / 이한구 / 이한규 / 이항숙 / 이항희 / 이현명 / 이현상 / 이현욱 / 이현모 / 이형무 / 이형희 / 이호근 / 이호중 / 이화수 / 이회영 / 임경빈 / 임근찬 / 임동수 / 임동하 / 임명재 / 임명훈
 임모환 / 임민호 / 임병업 / 임생기 / 임성배 / 임석주 / 임성욱 / 임영무 / 임영준 / 임용백 / 임인재 / 임정혁 / 임중석 / 임중섭 / 임중환 / 임진규 / 임창규 / 임춘섭 / 임춘성 / 임춘식 / 임태규
 임평욱 / 장기순 / 장병정 / 장상만 / 장석진 / 장선규 / 장성천 / 장용석 / 장용호 / 장준교 / 장준복 / 장준석 / 장직순 / 장진업 / 장호 / 전근열 / 전병수 / 전성일 / 전성환 / 전승민 / 전재현
 전지영 / 전진수 / 전창규 / 전현수 / 정규범 / 정규하 / 정기승 / 정기정 / 정동민 / 정동열 / 정미숙 / 정민호 / 정방근 / 정방근 / 정봉석 / 정선교 / 정성환 / 정성화 / 정연광 / 정연호 / 정영진
 정요열 / 정요규 / 정요찬 / 정응서 / 정일규 / 정점래 / 정중권 / 정준모 / 정창경 / 정태화 / 정해준 / 정현용 / 정혜원 / 정혜인 / 정호운 / 정희교 / 정희진 / 조길훈 / 조경제 / 조규태 / 조길원
 조동식 / 조두현 / 조무창 / 조문준 / 조봉원 / 조성만 / 조성태 / 조연제 / 조영록 / 조영상 / 조영호 / 조원익 / 조우현 / 조윤진 / 조익수 / 조중순 / 조중환 / 조중희 / 조해성 / 조형규 / 주광진
 주동준 / 주민규 / 주창원 / 주필삼 / 지승구 / 지승렬 / 지영교 / 지춘수 / 진명철 / 진명호 / 차상훈 / 차환용 / 채상욱 / 채석환 / 채일 / 최근배 / 최근실 / 최기원 / 최기혁 / 최도선 / 최만조
 최문규 / 최문호 / 최병국 / 최병학 / 최성달 / 최승순 / 최신영 / 최영남 / 최영두 / 최영락 / 최영수 / 최영호 / 최우용 / 최원덕 / 최용현 / 최응선 / 최재근 / 최재승 / 최재은 / 최중욱 / 최중성
 최중원 / 최진형 / 최희선 / 추병윤 / 탁한배 / 표준상 / 허상욱 / 한관희 / 한상준 / 한상철 / 한석근 / 한성준 / 한영석 / 한윤희 / 한진희 / 한태규 / 한호식 / 함근주 / 함경숙 / 함동일 / 허기영
 허려화 / 허석수 / 현남주 / 현명주 / 현연식 / 홍기택 / 홍대의 / 홍덕표 / 홍민철 / 홍범준 / 홍봉숙 / 홍서표 / 홍성수 / 홍세경 / 홍수정 / 홍순갑 / 홍민철 / 홍중필 / 홍지훈 / 황교민 / 황금철
 황덕모 / 황동선 / 황두성 / 황인숙 / 황민하 / 황병철 / 황병철 / 황선영 / 황수연 / 황인일 / 황우식 / 황이경 / 황인국 / 황정환 / 황창섭 / 황충국 / 황태안

일반

(주)경봉 / (주)굿네트웍스 / 김정수 / 미래공조(주) / 보광도탈이엔지(주) / (주)성호스텐 / (주)세인 / (주)아이알씨 / 안혜영 / (주)에이피피 / 주식회사 엔에프씨 / 이미영 / (주)이포넷 / (주)임파크
 오성호 / 유티정보(주) / 조중용 / (주)한국푸앤코 / 현수 / 홍혜린 / 최병용

학부모

강명구 / 강명덕 / 강명철 / 강복선 / 강석정 / 강성식 / 강승규 / 강신희 / 강인희 / 강정교 / 강중우 / 강준성 / 강중수 / 강철 / 강호식 / 강호철 / 강환규 / 고광희 / 고동현 / 고양순 / 고은영
 고은화 / 공경순 / 공영주 / 곽정숙 / 곽정순 / 곽정화 / 구본춘 / 구형자 / 구호숙 / 국영호 / 권경섭 / 권성환 / 권순자 / 권영자 / 권오용 / 권정의 / 권정의 / 김경석 / 김경원 / 김경은 / 김경혜
 김광수 / 김광일 / 김광자 / 김규태 / 김근제 / 김기영 / 김기현 / 김기환 / 김나경 / 김대우 / 김덕영 / 김도원 / 김동기 / 김동진 / 김명임 / 김명호 / 김문현 / 김미옥 / 김미자 / 김미정 / 김민영
 김병동 / 김병수 / 김병진 / 김복근 / 김봉식 / 김부자 / 김상두 / 김상만 / 김석중 / 김선관 / 김선규 / 김선태 / 김성숙 / 김성순 / 김성실 / 김수주 / 김숙희 / 김숙희 / 김순복 / 김승석 / 김승애
 김신옥 / 김애신 / 김아주 / 김양하 / 김연화 / 김영관 / 김영기 / 김영선 / 김영숙 / 김영화 / 김영희 / 김오남 / 김옥유 / 김용심 / 김용정 / 김용주 / 김은석 / 김은숙 / 김은숙 / 김은숙 / 김은실
 김은희 / 김응경 / 김익현 / 김재용 / 김재학 / 김정규 / 김정목 / 김정수 / 김정섭 / 김정자 / 김정환 / 김중구 / 김중국 / 김중길 / 김중산 / 김중숙 / 김중철 / 김지수 / 김지영 / 김진근 / 김찬호
 김창식 / 김창현 / 김창호 / 김춘재 / 김태안 / 김태연 / 김태희 / 김풍환 / 김필교 / 김한규 / 김현돈 / 김현희 / 김형선 / 김형성 / 김혜영 / 김홍광 / 김홍순 / 김효상 / 김홍용 / 김희숙 / 김희순
 나귀연 / 나금옥 / 나혜란 / 남상능 / 남영실 / 남현모 / 노기열 / 노농길 / 노순일 / 노은숙 / 도성재 / 류무자 / 류지현 / 류호길 / 목병균 / 문명예 / 문원길 / 문호진 / 민병구 / 민병도 / 민오경
 박경희 / 박계선 / 박기표 / 박노균 / 박능호 / 박만진 / 박면신 / 박명옥 / 박명희 / 박무돈 / 박미도 / 박미랑 / 박미숙 / 박병훈 / 박상기 / 박상희 / 박성배 / 박성욱 / 박순례 / 박승모 / 박승우
 박연옥 / 박영근 / 박영두 / 박영만 / 박영미 / 박영숙 / 박영석 / 박영신 / 박용범 / 박우하 / 박은녀 / 박인숙 / 박일임 / 박정원 / 박종무 / 박종희 / 박주현 / 박준인 / 박중수 / 박찬욱 / 박판규
 박평우 / 박현숙 / 박현실 / 박희상 / 방성주 / 방현천 / 배미애 / 배미현 / 백남태 / 백병하 / 백용선 / 변희진 / 붐금희 / 서극동 / 서미애 / 서미영 / 서병수 / 서용재 / 서유내 / 선영옥 / 설광수
 성금숙 / 성기희 / 성대중 / 성미옥 / 성미혜 / 성샘결 / 성익중 / 성인선 / 성점수 / 소귀섭 / 소지은 / 손난향 / 손문성 / 손보익 / 손재영 / 손정제 / 손호순 / 송경수 / 송경희 / 송명중 / 송명중
 송미영 / 송병원 / 송선욱 / 송수훈 / 송순일 / 송승호 / 송영옥 / 송윤희 / 송정미 / 송정석 / 송정원 / 송희상 / 신경애 / 신동일 / 신명희 / 신상기 / 신순옥 / 신영순 / 신옥 / 안규세 / 안남욱
 안명섭 / 안병립 / 안연선 / 안익훈 / 안정열 / 안정표 / 안혜영 / 양기천 / 양승석 / 양원석 / 양윤정 / 양정안 / 양희문 / 양희인 / 어경임 / 엄태호 / 여각동 / 여철현 / 염병국 / 오건석 / 오금복
 오대지 / 오영숙 / 오영호 / 오용인 / 오윤영 / 오정애 / 오주심 / 오창석 / 오태근 / 오형택 / 오혜경 / 왕남원 / 왕남원 / 왕영숙 / 우동석 / 우은경 / 우중균 / 우춘섭 / 원용석 / 위홍환 / 유강하
 유권중 / 유동복 / 유명섭 / 유미경 / 유보형 / 유상열 / 유영해 / 유옥순 / 유우근 / 유인표 / 유현순 / 유혜주 / 유호승 / 윤광석 / 윤민경 / 윤상중 / 윤석열 / 윤선희 / 윤성택 / 윤성희 / 윤용식
 윤인명 / 윤인중 / 윤주용 / 윤하경 / 윤혜경 / 은미희 / 이강숙 / 이경규 / 이경수 / 이경호 / 이계상 / 이광미 / 이광희 / 이규백 / 이규환 / 이기섭 / 이기훈 / 이기훈 / 이동규 / 이동규 / 이동래
 이동성 / 이동열 / 이만기 / 이면 / 이명자 / 이명주 / 이문희 / 이미지 / 이보영 / 이보형 / 이복실 / 이복석 / 이부영 / 이삼균 / 이상규 / 이상근 / 이상순 / 이상철 / 이선경 / 이성숙 / 이상우
 이성현 / 이성희 / 이수형 / 이순덕 / 이순아 / 이순이 / 이순택 / 이승규 / 이승미 / 이승희 / 이양희 / 이양희 / 이연숙 / 이연순 / 이영경 / 이영규 / 이영미 / 이영수 / 이영학 / 이욱자 / 이용균
 이우영 / 이윤희 / 이은영 / 이은영 / 이은주 / 이은희 / 이은희 / 이인규 / 이인수 / 이인순 / 이재려 / 이재순 / 이재식 / 이재양 / 이정순 / 이정옥 / 이종근 / 이진우 / 이진희 / 이춘형 / 이태원
 이태호 / 이한록 / 이한영 / 이한택 / 이현선 / 이현표 / 이혜선 / 이홍주 / 이호순 / 이효식 / 이희경 / 이희관 / 임금자 / 임기한 / 임동주 / 임봉길 / 임선욱 / 임영미 / 임윤희 / 임인섭 / 임인숙
 임정희 / 임종규 / 임중현 / 임찬건 / 임채숙 / 임화선 / 장경남 / 장광열 / 장도영 / 장병윤 / 장석일 / 장소영 / 장양남 / 장용창 / 장은영 / 전도수 / 전두수 / 전상수 / 전용현 / 전우석 / 전진조
 전탁일 / 전현숙 / 정구영 / 정구창 / 정균희 / 정기석 / 정남오 / 정동호 / 정명선 / 정문기 / 정복길 / 정성윤 / 정성희 / 정양민 / 정양원 / 정영국 / 정연영 / 정영욱 / 정영욱 / 정영희 / 정우연
 정요열 / 정요규 / 정요찬 / 정응서 / 정일규 / 정점래 / 정중권 / 정준모 / 정창경 / 정태화 / 정해준 / 정현용 / 정혜원 / 정혜인 / 정호운 / 정희교 / 정희진 / 조길훈 / 조경제 / 조규태 / 조길원
 조동식 / 조두현 / 조무창 / 조문준 / 조봉원 / 조성만 / 조성태 / 조연제 / 조영록 / 조영상 / 조영호 / 조원익 / 조우현 / 조윤진 / 조익수 / 조중순 / 조중환 / 조중희 / 조해성 / 조형규 / 주광진
 주동준 / 주민규 / 주창원 / 주필삼 / 지승구 / 지승렬 / 지영교 / 지춘수 / 진명철 / 진명호 / 차상훈 / 차환용 / 채상욱 / 채석환 / 채일 / 최근배 / 최근실 / 최기원 / 최기혁 / 최도선 / 최만조
 최문규 / 최문호 / 최병국 / 최병학 / 최성달 / 최승순 / 최신영 / 최영남 / 최영두 / 최영락 / 최영수 / 최영호 / 최우용 / 최원덕 / 최용현 / 최응선 / 최재근 / 최재승 / 최재은 / 최중욱 / 최중성
 최중원 / 최진형 / 최희선 / 추병윤 / 탁한배 / 표준상 / 허상욱 / 한관희 / 한상준 / 한상철 / 한석근 / 한성준 / 한영석 / 한윤희 / 한진희 / 한태규 / 한호식 / 함근주 / 함경숙 / 함동일 / 허기영
 허려화 / 허석수 / 현남주 / 현명주 / 현연식 / 홍기택 / 홍대의 / 홍덕표 / 홍민철 / 홍범준 / 홍봉숙 / 홍서표 / 홍성수 / 홍세경 / 홍수정 / 홍순갑 / 홍민철 / 홍중필 / 홍지훈 / 황교민 / 황금철
 황덕모 / 황동선 / 황두성 / 황인숙 / 황민하 / 황병철 / 황병철 / 황선영 / 황수연 / 황인일 / 황우식 / 황이경 / 황인국 / 황정환 / 황창섭 / 황충국 / 황태안

2013학년도 수시모집 마무리 즈음에서



23.05:1 경쟁률



접수 횟수 6회 제한



자연계 논술 2.5%P 상승



서울 강남지역학생 80%

12월17일 마지막 총원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마무리됐다. 올해로 두 번째 입시인 만큼 지난해보다 조금은 낮지 않을까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입시인 것 같다. 수시모집은 다양한 학생의 선발을 위해 서류전형, 면접, 논술 고사 등 오프라인에서 치러야하는 과정이 많다보니 정시모집보다 몇 배로 품이 많이 든다. 4월부터 시작되는 입학홍보는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8월 초엔 끝나고, 그때부터는 한해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올해 수시부터는 접수 횟수에 6회라는 제한이 생겼다.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 강남지역학생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대학교는 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 우리 보다 먼저 원서접수를 마감한 수도권 대학들이 지난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경쟁률로 마감한 것을 보며 올해 수시 경쟁률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주대는 견재했다. 지난 9월11일 마감한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수시 일반/특별전형은 전체 658명 모집에 15,173명이 지원해 평균 23.0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계의 일반전형1(논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2.5%P 상승했다. 대부분 수도권 대학의 수시경쟁률이 30% 이상 하락한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상향조정된 것에 비하면 무척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람을 느낀 것도 잠시. 원서접수가 끝났다고 입학처의 불안과 걱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올해의 가장 큰 걱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말 그대로 최저 수능점수 기준을 정해서 그 선을 넘는 학생만을 선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그동안 상위 2개 영역 백분위 평균점수를 가지고 했던 것을 올해 등급기준으로 바꿨고, 평균이 아닌 영역별 등급 점수 각각을 봤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질까 불안이 컸는데 결과를 보니 생각만큼 영향은 크지 않았다. 또 하나 실질경쟁률을 좌우하는 변수 중 하나가 논술 응시율이다. 논술고사는 수능시험 이전에 원서 접수를 받고, 수능시험 이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잘 본 학생은 수능성적으로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고, 수능시험을 잘 못 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가 어려운 학생도 논술시험을 응시하지 않기 때문에 결시율이 무척 높다(2012학년도 논술시험 응시율은 42.1%로 실질경쟁률은 11.4 대1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3학년도 일반전형1 실질경쟁률은 7.60대1로 전년에 비해 큰폭 떨어졌다. 자세히 뜯어보면 자연/인문계열의 차이가 컸다. 자연계열은 217명 모집에 2225명이 응

시해 실질경쟁률이 10.25대1로 작년과 비슷했지만 인문계열은 3.07 대1이라는 낮은 경쟁을 기록했다. 이는 자연계와 인문계에서 아주대학교를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남은 걱정은 등록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우수한 학생을 골라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등록을 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 입학처 식구들이 모두 노력한 만큼 아주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등록하였으면 좋겠다(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등록 포기자들이 작년에 비해 적은 편이라 무척 희망적이다). 등록까지 마무리되면 수시전형의 경쟁률뿐 아니라 성적분석까지 할 수 있게 되고, 2013 수시전형에 대한 모든 결과를 수치로 볼 수 있게 된다. 경쟁률로만 봤을 때 타 대학에 비해 절반의 성공정도로 자평하고 있지만 성적까지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 사실 궁금하다. 특히 2014학년도 입시에는 변화요인이 무척 많다. 그런 만큼 내년 입시는 조금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입시결과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쟁률이나 성적분석으로 성공이나 실패나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선발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더욱 자신 있게 학교를 홍보하고, 입학에 대해 조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입학처장을 하는 한 이런 기대 반, 걱정 반의 상태를 벗어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로 입학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수시모집은 모두 끝났고, 곧 정시 접수가 시작된다. 수시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걱정과 불안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정시는 대부분 수능 성적이 좌우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명백히 수치로 그 결과를 볼 수 있고 덕분에 전년도와의 비교도 훨씬 용이하다. 그런 만큼 더욱 걱정과 불안이 앞서지만 사실 기대도 그만큼 높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시상담을 하는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문의가 많기 때문이다. 일년간 노력해서 뽑은 2013학년도 아주대 신입생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정말 궁금하다.



아주대학교 입학처장 김경래

1명의 선배가 1달에 1만씩 기부하는 1-1-1캠페인



“생각에만 머물지 마세요.
편리해진 방법으로
후배사랑을 보여 주세요.”

감동을 더하는 무한 아주사랑

차곡차곡 쌓을수록 커져가는 아주인의 무한감동 1-1-1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신 1-1-1 캠페인으로 모금한 장학금은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1-1-1 캠페인 참여하시는 방법

- 1.온라인약정 학교 홈페이지에서 1-1-1캠페인 배너 클릭후 약정서 작성
 - 2.이메일/팩스약정 약정서를 작성하여 하단의 이메일 및 팩스로 송부
 - 3.전화문의약정 하단의 대학발전본부로 전화문의하여 약정서 작성
- * 위의 방법으로 약정하시면 1달에 1번, 1만원씩 선배님 통장에서 CMS 자동결제 됩니다

기부금 용도

재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 : 대학발전본부 <http://ajousarang.ajou.ac.kr> Tel 031-219-2107~9, 2099 Fax 031-219-1623 E-mail ajousarang@ajou.ac.kr